

『기묘제현수필』과 『기묘제현수첩』의 제작과 확산

김덕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선임연구원, 한국한문학 전공

kds2691@aks.ac.kr

I. 머리말

II. 『기묘제현수필』과 『기묘제현수첩』의 제작

III. 『기묘제현수필』과 『기묘제현수첩』의 모사본 제작

IV. 『사제선생실기』와 모각본 필첩의 간행

V. 맺음말

I. 머리말

남원 순흥안씨가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기탁한 『기묘제현수필(己卯諸賢手筆)』(이하 ‘수필’로 약칭)과 『기묘제현수첩(己卯諸賢手帖)』(이하 ‘수첩’으로 약칭)은 1994년 5월에 각각 보물 1197호와 1198호로 지정되었다. 수필은 기재(幾齋) 안처순(安處順, 1492-1534)이 1517년(중종 12) 구례현감으로 부임할 때 24명의 동료가 써준 31편의 전별시문을 수록하고 있으며, 수첩은 1517년부터 1531년(중종 26)까지 12명의 벗이 보낸 41통의 편지를 싣고 있다.¹⁾ 전별시문과 편지를 작성한 인물은 정암(靜菴) 조광조(趙光祖), 충암(沖庵) 김정(金淨), 양덕(陽德) 기준(奇遵), 송재(松齋) 한충(韓忠) 등의 기묘명현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눌재(訥齋) 박상(朴祥), 기재(企齋) 신광한(申光漢), 호음(湖陰) 정사룡(鄭士龍)의 경우처럼 16세기 소단(騷壇)의 우이를 잡았던 문장가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다. 월정(月汀) 윤근수(尹根壽)는 기묘제현이 문학에서는 당시(唐詩)와 진한고문(秦漢古文)을 전범으로 삼고, 서법은 진(晉)나라를 배워야 한다는 복고적 기치를 내세우며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언급한 바 있다.²⁾ 더욱이 기묘사화의 여파로 현전하는 기묘제현의 친필 목적이 매우 희소하기 때문에 서예사, 서지학 연구에 더없이 귀중한 자료다. 그럼에도 서예사 관련 연구에서 간략히 언급했을 뿐³⁾, 수필과 수첩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수필과 수첩의 형태적 변모과정을 살피고 나서, 모사본(模寫本)과 모각본(模刻本)의 출현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형태적 변모과정을 고구함으로써 성첩 및 장황 내력, 작품의 출입과 차례(次第)의 변화 등이 일정 부분 해명될 것이고, 모사본과 모각본의 출현 양상을 통해 두 첩의 유전과 확산 경위, 수필과 수첩에 대한 당대 지식인의 인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기묘제현수필’과 ‘기묘제현수첩’이란 서명에 대해 짚막하게 언급하겠다. 우선 서명에 들어간 ‘기묘제현’은 ‘기묘명현’이

1) 안승준, 「『기묘제현수필·수첩』의 내용과 성격」, 『기묘제현수필 기묘제현수첩』, 한국 간찰자료선집10(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2)尹根壽, 『月汀先生別集』 권4, 〈漫錄〉. “己卯諸賢, 一時之論, 以爲文則法漢, 書則法晉, 詩則學唐, 人物則當以宋諸儒爲準. ……”

3) 진봉모, 「南原의 書藝와 書藝遺蹟 考察」,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8).

란 표현과 함께 선조 연간에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된 용어다. 안처순의 경우에 한정하여 검토해보면 그의 손자 안창국(安昌國)이 1595년 사망했을 때 윤근수(尹根壽, 1537-1616)는 “안태상(安太常)(필자주: 安處順)은 기묘명현이거늘, 아름답게도 그대가 두 대 만에 그 명성 계승했네(己卯名賢安太常, 多君再世襲餘芳)”라 읊조렸고⁴⁾, 그의 사위 옥계(玉溪) 노진(盧禎, 1518-1578)의 행적을 기술하는 글에서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 1564-1635)는 “부인 안씨는 순흥의 망족이니, 기묘제현 가운데 학행으로 유명했고 벼슬이 봉상시판관에 이른 휘 처순이란 이가 그 부친이다”라 했으며⁵⁾, 규암(圭菴) 송인수(宋麟壽, 1499-1547)의 〈사제당제영(思齊堂題詠)〉에 “사제는 기묘명현 안처순의 호(號)다”라는 주석이 보인다.⁶⁾ 문제는 ‘수첩(手帖)’과 ‘수필(手筆)’이란 글자다. ‘수첩’은 손수 쓴 편지나 문장을 뜻하는데 친필 편지를 지칭할 때가 많다. ‘수필’은 손수 쓰거나 그린 것으로 친필 편지, 친필 시문, 친필 필적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 두 단어는 친필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하지만 수필의 개념이 더 포괄적이다. ‘수필’과 ‘수첩’은 통상 문장 속에서 보통명사로 활용되나, 『기묘제현수필』과 『기묘제현수첩』의 약칭으로 쓰이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 밖에 ‘기묘제현수첩’이 두 종의 첩을 통칭할 때도 있고⁷⁾, 반대로 ‘기묘제현수필’이 두 종의 첩을 통칭하기도 한다.⁸⁾ 따라서 두 용어를 접할 때 다의적 해석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4) 尹根壽, 『月汀集』 권3, 〈挽安昌國〉.

5) 李廷龜, 『月沙集』 권47, 〈吏曹判書玉溪先生盧公墓誌銘〉. “夫人安氏, 順興望族, 以學行有名於己卯諸賢中, 官至奉常判官諱處順者, 其父也.”

6) 宋麟壽, 『圭菴集』 권1, 〈思齊堂題詠〉【并小序○思齊, 即己卯名賢安公處順號也】.

7) 都慶俞, 『洛陰文集』 권6, 〈墓誌〉. “公善筆法, 得鍾·王體. 嘗倣己卯諸賢手帖, 各體酷似, 藏于家.”

8) 19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안처순 후손의 노력으로 『기묘제현수필』과 『기묘제현수첩』을 模刻하여 한 책으로 간행한 적이 있는데 당시 이 책의 서명은 ‘기묘제현수필’이었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기묘제현수필』은 ‘수필’, 『기묘제현수첩』은 ‘수첩’, 두 첩을 모각하여 합본한 『기묘제현수필』은 ‘모각본 필첩’이라 칭하였다.

II. 『기묘제현수필』과 『기묘제현수첩』의 제작

1. 1549년, 하서 김인후의 서문

수필에 수록된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의 글은 수필·수첩의 내력과 성첩 경위 등을 추론할 수 있는 자료 가운데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이다. 안처순 사후 15년이 지났을 무렵, 즉 1549년(명종 4) 7월에 그의 아들 안전(安璫)의 부탁을 받고 찬술한 서문이다. 1568년(선조 1)에 간행된 김인후의 문집 초간본에는 제목이 <기묘제현첩발(己卯諸賢帖跋)>이다. 하지만 1686년(숙종 12) 간행된 중간본 이후에는 “옛 문집에는 ‘序’가 ‘跋’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선생의 수필본(친필본)을 얻어 바로잡는다(舊集作跋而今得先生手筆本以正之)”라는 주석과 함께 제목이 <기묘제현첩서(己卯諸賢帖序)>로 되어 있고, 서문 후반부를 “김인후가 삼가 서문을 쓰다(金麟厚謹序)”로 수정했다.⁹⁾ 문체상의 혼동은 그의 글이 서문인지 발문인지가 문장 속에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인후 글의 대상 문헌이 1568년 당시에 이미 ‘기묘제현첩’으로 명명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후술하겠지만 현재 김인후의 글은 수필에, 그것도 첩의 앞뒤가 아닌 가운데 부분에 실려 있다. 하지만 적어도 숙종 연간까지는 수필이 아닌, 수첩의 모두(冒頭)에 서문의 형태로 실려 있었다.

김인후가 찬술한 서문은 아래와 같이 시작된다. 이 글을 통해 김인후가 기묘제현첩을 처음 열람할 당시, 수필과 수첩의 형태를 추정할 수 있다.

竹溪安君璫이 그 선군과 동지들이 주고받은 약간 편의 서간을 수습하고 나서 한 部로 편집하여 완성했다. 그리고 예전부터 소장하고 있던, 아버이 봉양을 위해 현감에 제수되었을 때 전별에 임하여 지어준 序詩帖과 함께 도합 두 책으로 만든 뒤, 나에게 글을 지어달라고 부탁했다.(竹溪安君璫, 收拾其先君子同志之往復者, 舍若干紙, 緝成一部, 與舊藏賜養監縣時贈行序詩帖, 共爲二表, 屬麟厚以文之)¹⁰⁾

안전이 김인후에게 글을 부탁하며 보여준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9) 하지만 수필에 수록된 김인후의 친필 서문에는 ‘서문(序)’이란 표현이 보이지 않으며, 후반부도 “김인후가 삼가 쓰다(金麟厚謹書)”로 되어 있다.

10) 金麟厚, 『河西先生全集』 권11, <己卯諸賢帖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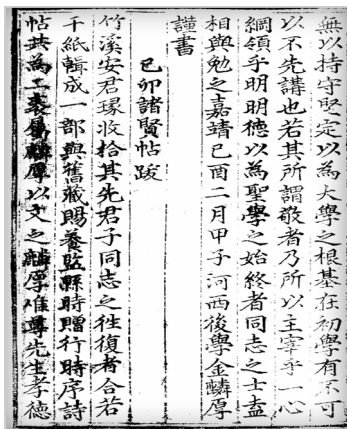


그림1-『河西先生全集』
초간본, 1568



그림2-『河西先生全集』
삼간본, 1797

부친과 동지가 주고받은 편지를 수습한 뒤 이것을 편집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은 것으로 그 주체는 안전이다.¹¹⁾ 다른 하나는 안처순이 구례현감으로 부임할 때 지인들이 써준 송서(送序)와 별시(別詩)를 첩으로 묶은 것(贈行序詩帖)이다. ‘예전부터 소장하고 있던(舊藏)’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오래전 안처순에 의해 첩(帖)으로 만들어져 집안에 전해지던 것이다. 1518년 1월에 기재(企齋) 신광한(申光漢)은 안처순을 위해 전별시를 짓고, 그 뒤에 “비가 와도 길을 떠나시렵니까? 어젯밤 작별을 말한 것이 이미 꿈속과 같습니다. 보내주신 종이를 헛되어 저버릴 수 없기에 비록 졸속으로 시를 지어 올리나 정을 다하지 못하니 어찌 이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천리 밖의 얼굴로 여길 뿐입니다”라 적은 바 있다.¹²⁾ 안처순이 전별첩을 만들 요량으로 지인들에게 미리 종이를 나눠준 사실이 ‘보내주신 종이를 헛되어 저버릴 수 없다(惠紙, 不可虛負)’란

11) 김인후의 글 중간에 “안군은 일찌감치 의로운 방도를 계승했으니 학문을 크게 이루기 전에 선생(필자주: 安處順)께서 세상을 떠나셨다. 이에 그가 사랑하는 바를 사랑하고 그가 공경하는 바를 공경했으니, 나는 이 책을 편집한 것에서 그것을 보았다(安君早承義方, 學未大成, 而先生下世矣. 愛其所愛, 敬其所敬, 余於緝是編也, 見之矣)”가 보인다. 안전이 부친의 뜻을 계승하기 위해 부친이 주고받은 편지를 직접 편집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참고로 수필에 실린 김인후의 친필 서문에는 ‘세상을 떠나셨다(下世)’가 ‘世’로 되어 있는데, 이후 문집에 수록할 때 문맥을 고려하여 수정한 것이다. 이 밖에 ‘者’, ‘夫’의 경우처럼 文意에 딱히 영향을 끼치지 않는 글자의 출입이 보인다.

12) 수필, 신광한, 〈送安博士順之歸養湖南〉. “雖雨亦行耶? 昨宵話別, 已如夢裏. 惠紙, 不可虛負, 雖效拙速, 情有未卒, 何以此相贈耶! 以爲千里目則云已爾.”

표현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¹³⁾ 수필에 수록된 조광조의 전별시 아래에도 안처순이 조광조와 유숙할 때, 몇 수의 시를 애써 요구했다는 기록이 보인다.¹⁴⁾

한편 1599년(선조 32)부터 1604년 사이에¹⁵⁾ 진안현감(鎭安縣監) 심인조(沈仁祚)가 수필 속에 실린 외조부 신광한의 친필 시편을 보고 나서 자기 집안의 가보로 삼기 위해 가져간 사실이 확인된다.¹⁶⁾ 심인조 역시 명필이었던바¹⁷⁾ 친필을 가져가면서 본인 필치로 외조부의 작품을 대신 써주었다. 따라서 현전하는 수필에 수록된 신광한의 시편은 심인조의 필적이다. 수첩·수필은 1601년 처음 한양에 소개되는데 그 이후에 만들어진 모사본에도 심인조 관련 기록이 나타난다.¹⁸⁾ 심인조가 신광한의 친필을 가져간 것은 1599-1601년 사이였고, 그즈음에 안처순 후손이 해당 사실을 적어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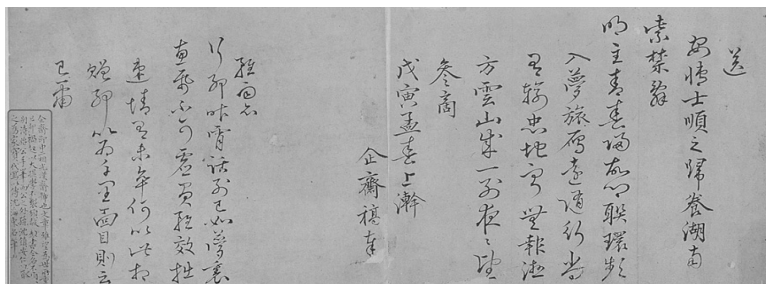


그림3-수필, 1518년 신광한 전송시(沈仁祚 書)와 첨지 기록

- 13) 김인후를 위시하여 여러 인사가 수첩과 수필 중에서 특히 수첩을 중시한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그 이유는 기묘제현의 일상과 학문, 고뇌 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 14) 수필, 조광조, 〈送順之南行〉. “順之來宿儂齋，固索數章之詩，順之意，豈非一別而久隔六期，朋友相規，適眇無得，以此欲而作慰想之一事，警懈之一助耶!”
- 15) 『鎭安縣邑誌』(규장각 소장본,奎17406) ‘先生案’조에 의하면 심인조가 진안현감을 역임한 시기는 1599년부터 1604년까지다.
- 16) 수필, 신광한, 〈送安博士順之歸養湖南〉의 첨지. “……別詩，始公手筆，而公之外孫沈鎭安仁祚取之，爲家寶，代寫以傳。沈海東名筆也。”
- 17) 심인조는 韓濩와 쌍벽을 이루는 선조 연간의 명필로서 두 사람은 격일로 사망했다. 黃暹, 『息庵集』 권1, 〈沈仁祚·韓濩間日連死〉【二人以第一筆名】. “天上新修白玉樓，人間呼取兩鍾繇。虛皇命寫拋梁字，名併修文第一流。”
- 18) 都慶俞, 『己卯諸賢書牘帖』(屏巖書院 소장본). “送行詩即公手筆，而公之外孫沈公仁祚取其手跡，乃自寫以傳之.” 수필 기록과 비교해볼 때 글자의 출입이 다소 보인다. 안승준 선생님의 호의로 도경유 모사본의 복사본을 열람할 수 있었다.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

2. 1601년, 유천 한준겸의 서문

김인후가 서문을 쓴 지 50여 년이 지났을 때 수첩이 비로소 첩(帖)의 형태로 제작된다. 1601년(선조 34) 직후에 씌어진 유천(柳川) 한준겸(韓浚謙, 1557-1627)의 서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준겸은 인조의 장인이자 유영경과 사돈이었으며 당대의 문사인 현곡(玄谷) 정백창(鄭百昌)과 동강(東江) 여이징(呂爾徵)을 사위로 두었다. 한준겸의 외조부는 평산신씨로서 예빈시정을 지낸 신건(申健)이고, 외조모는 순흥안씨로서 회양부사를 역임한 안처명(安處明)의 딸이다.¹⁹⁾ 안처명과 안처순은 사촌지간이므로 안처순은 한준겸의 외가 인척이 되는 셈이다. 한준겸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된다.

① 이하의 것은 기묘제현이 그 벗 幾齋 安公에게 보낸 편지다.²⁰⁾(수첩, 한준겸 친필 서문)

② 이하의 것은 기묘제현수첩으로서 그 벗 幾齋 安公에게 보낸 편지다.²¹⁾(『柳川遺稿』, 雜著, 〈己卯諸賢書帖識〉)

①은 수첩의 맨 앞에 수록된 한준겸의 친필 서문이다.²²⁾ ②는 한준겸 문집에 실린 〈기묘제현서첩지(己卯諸賢書帖識)〉로서 인조 연간에 『유천유고(柳川遺稿)』를 간행할 때 한준겸의 글에 ‘기묘제현서첩지’라는 제목을 붙인 것이다.²³⁾ ①과 ②는 글자의 출입에 작은 차이를 보이는데, 의미 맥락과 통사 구조를 고려했을 때 ①의 한준겸 친필 서문이 더 자연스럽게 읽힌다.

1601년 당시, 수첩은 아직 성첩(成帖)되지 않은 채 책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 “공의 집안에는 당시 벗들의 서찰 약간 편이 책상자 속에 보관되어 있었다”라는 한준겸의 설명이 이를 입증한다.²⁴⁾ 아래 인용문을

19) 吳億齡, 『晚翠集』 권5, 行狀, 〈贈貞敬夫人申氏狀〉.

20) “左卽己卯諸賢抵其友幾齋安公之書也.”

21) “左卽己卯諸賢手帖, 抵其友幾齋安公之書也.”

22) 序跋類의 제목이나 본문 중에 序, 跋, 後識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 문체를 정의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23) 한준겸의 글이 수첩의 冒頭에 차제되어 있고, 본문 도입부에서 수첩을 ‘이하의 것(左)’이라 표현한바, 이 글에서는 한준겸의 글을 ‘서문’으로 지칭하겠다.

24) 수첩, 한준겸 서문. “公之家, 有一時朋儕書札若干幅, 藏在篋笥中, 雖經兵燹, 獲保無恙, 殆天之所以壽斯文於萬一也歟.”

통해 서첩의 한양 유입과정, 성첩 및 장황 경위 등을 엿볼 수 있다.

신축년(1601) 내가 사명을 받들고 남쪽 지방을 지날 때 공의 庶孫 應國을 통해 처음으로 그것을 얻어 보았는데 정암 선생 이하 名卿賢士의 필적이 모두 그 속에 들어 있었다. 삼가 공경히 읽은 이래로 마치 훌륭한 보배를 얻은 듯한 느낌이 들기에 마침내 그것을 가지고 한양으로 돌아와 하나의 첩으로 만들고는 벗들에게 돌려가며 보여주었다. 당시 信川 康復誠 군은 바로 灘叟公(필자주: 李延慶)의 외손이었는데 그 외조부의 수택도 여기에 실려 있음을 증시한 나머지 태학사 延陵 李好閔 공과 상의한 뒤 나라 안에서 손꼽히는 장인을 구하여 다시 깔끔하게 장정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기묘제현수첩’이라 명명한 뒤 石峯 韓濩에게 부탁하여 그 표지에 제첩을 썼다. 하늘이 사문의 수명을 늘리려는 뜻이 이에 이르러 다시 배가된 것이다.²⁵⁾

1601년 정월, 사도도체찰부사(四道都體察副使)에 제수된 한준겸은 사도도체찰사 이덕형(李德馨)과 함께 하삼도를 순찰하며 군비를 점검했다.²⁶⁾ 남원을 경유할 즈음 안전의 서자인 안응국(安應國)을 통해 기묘제현 필적을 친견하게 된다. 기묘제현의 육필에 감동한 나머지, 상경하는 길에 친필 서찰과 전별축을 가져왔다. 그리고 서찰 묶음을 하나의 첩으로 만든 뒤 여러 벗에게 전하며 일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것이 수필·수첩의 유전과 확산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당시 형조정랑을 역임하던 죽간(竹間) 강복성(康復誠, 1550-1634)도 서찰첩을 보았는데, 그 속에서 자신의 외조부인 탄수(灘叟) 이연경(李延慶, 1484-1548)의 편지를 발견했다.²⁷⁾ 이에 홍문관제학 오봉(五峯) 이호민(李好閔, 1553-1634)과 상의하여 최고의 기술자를 동원해서 다시 정결하게 장황(粧纘)했고, ‘기묘제현수첩’이라 명명한 뒤 석봉(石峯) 한호(韓濩)에게 부탁하여 표제를 썼다.

한준겸이 기술했듯이 ‘기묘제현수첩’이라는 제첩 글씨를 쓴 것은 한호가 분명하다.²⁸⁾ 하지만 수필의 제첩인 ‘기묘제현수필’도 직접 썼을 것으로

25) 韓濩謙, 『柳川遺稿』, 「雜著」, 〈己卯諸賢書帖識〉. “歲辛丑, 余奉使過南中, 從公之庶孫應國, 始得見之. 自靜庵先生以下名卿賢士手跡, 咸萃于其中. 伏讀以還, 如獲拱璧, 遂持以歸京師, 作爲一帖, 傳示士友間. 於是信川康君復誠, 實灘叟公之宅相也, 重其外公手澤亦在茲, 謀於大學士延陵李公好閔, 得國匠更加淨粧, 命之曰己卯諸賢手帖, 倩石峯韓濩題其面. 天之所以壽斯文者, 至此而又加一倍矣.”

26) 『선조실록』 34년(1601) 1월 1일; 1월 17일조.

27) 수첩에는 이연경의 서찰 세 통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연경은 ‘延慶’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문면에 그대로 노출했다.

28) 현재 수첩의 제첩은 연도가 오래되어 표면의 짙은 색이 대부분 떨어져나갔고, 후대인이

추정된다. 19세기 전반기에 수필과 수첩의 모각본을 간행했을 때 그 서명을 ‘기묘제현수필’이라 정했다. 당시 수필의 제첩 글씨를 그대로 새겨 표제로 삼았는데, 제첩 좌측에 한호의 필치임을 명시했다.



그림4-수첩(좌), 수필(가운데), 모각본 필첩(우)의 제첩

아래 인용문은 서찰의 개별 저자를 명시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한 부분이다.

서간 뒷부분의 호칭은 혹은 字를 썼고 혹은 號를 썼다. 더러는 숨기거나 생략하여 사람들이 언뜻 보았을 때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한 부분도 있다. 따라서 실마리를 찾아서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또한 思齋(필자주: 金正國)의 『己卯黨籍』의 형식을 본떠서 생년, 과거합격 연도, 죽기 직전 관직, 귀양지를 나열하여 각 편지 아래에 붙였다. 미상인 경우는 일단 빠뜨려놓은 채 식견이 있는 자를 기다린다.²⁹⁾

자신의 호칭을 일부러 감추거나 축약한 서찰은 최대한 단서를 추적하여 저자를 명시했고, 『기묘당적(己卯黨籍)』의 기술방식에 의거하여 저자의 인적 사항을 서찰 뒷부분에 간략히 열거했다. 그리고 끝까지 저자를 밝힐 수 없는 경우는 미상인 채 공란으로 남겨두어 훗날의 고증을 기약했다. 다음 서찰은 저자를 추론했으나 확정하지 못한 경우다.

본래 필획 위에 덧썼기 때문에 획이 두꺼워졌다.

29) 韓浚謙, 『柳川遺稿』, 「雜著」, 〈己卯諸賢書帖識〉. “簡尾之稱, 或字或號, 間有秘略, 使人驟見, 將不能易詳. 故更容尋繹, 表而出之. 且倣思齋黨籍, 開列生年・科歲・卒官・謫所, 附於各幅之下. 其所不詳, 姑闕之以俟知者.” 수첩에는 ‘開列’이 ‘并列’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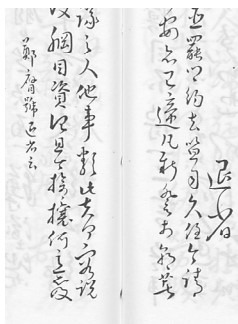


그림5-都慶俞 寫(1636),
鄭應 편지 뒷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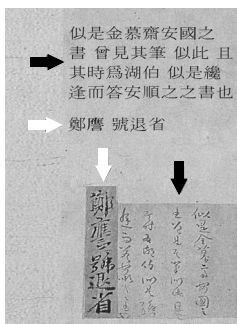


그림6-수첩, 鄭應 편지
(1519) 첩지
부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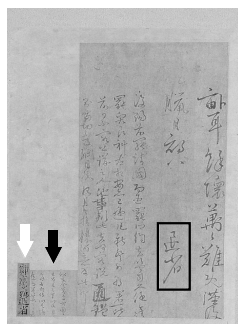


그림7-수첩, 鄭應 편지
(1519) 뒷부분과
첩지 부분

그림7에 제시한 서찰의 후반부에 ‘臘月初八, 退省’이라 적혀 있다. ‘퇴성’이라 자칭한 사람이 12월 8일에 서찰을 썼다는 뜻이다. 그림6은 나중에 첩지를 붙여 작자를 비정한 부분인데, 왼쪽 첩지에서는 ‘퇴성’이 정옹(鄭應)의 호(號)임을 밝혔고, 오른쪽 첩지에서는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을 저자로 비정했다.³⁰⁾ 그림5는 1636년 만들어진 도경유 임서본에 실린 해당 서찰의 뒷부분으로 저본의 첩지에 적힌 내용까지 그대로 전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첩에는 정옹이 쓴 것이 분명한 서찰이 한 통 실려 있는데³¹⁾ 위 서찰의 필체와 매우 흡사하다. 정옹이 ‘퇴성’이라는 호를 쓴 사례는 어떤 문헌에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필체의 유사성에 착안하여 위 서찰의 저자를 정옹으로 비정했다가³²⁾ 나중에 누군가가 당시의 정황과 서체의 유사성, 관력(官歷)의 상관성을 들어 ‘김안국’ 설을 제시한 것이다. 한준겸이 기약했던 저자 고증에 대한 필요성은 4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요약하자면 수필과 수첩을 한양에 가져와서 수첩을 첩으로 만든 뒤, 두 첩의 존재를 널리 소개한 것은 한준겸이고, 완정하게 장황하고 나서

30) 도경유 임서본과 비교해볼 때 2개의 첩지 가운데 우측 첩지에 적힌 견해가 시기적으로 나중에 제시된 것이다.

31) 수필, 〈大柔順之奉復頭流菊巖〉. 이 편지는 정옹이 大柔(金絳의 字)와 順之(安處順의 字)에게 보낸 것으로 자신을 ‘應’이라 칭하고 있다.

32) 도경유 임서본에서는 “鄭應號退省云”이라 하여, 저자 비정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묘제현수첩’이라 명명하고 한호에게 제첩 글씨를 쓰게 한 것은 강복성과 이호민이다. 한준겸이 수첩 제작과 현양에 적잖이 노력을 기울인 것은 기본적으로 안처순이 그의 외가 존속이라는 혈연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했고³³⁾, 강복성 역시 외조부의 육필 간찰이 수첩에 수록된 사실에 격양되어 당대 최고의 사자관과 장황 기술자를 동원한 것이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당대 문사들의 관심이 수첩에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한준겸 서문의 주대상 문헌은 “이하의 것은 [...] 편지다(左卽 [...] 書也)”에서 알 수 있듯이 수필이 아닌, 수첩이다.³⁴⁾ 한준겸은 수첩의 존재와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했고, 수필에 대한 언급은 서문 끝에 보이는 “이 밖에 구례로 부임하는 공을 전송하는 별어첩(別語帖)이 또 있는데, 이것도 당시의 제현들이 써준 것이다. 유독 한스러운 것은 남사화(南士華)(필자주: 南袞)의 시 또한 그 사이에 끼어 있다는 점이다. 그것을 제거하지 않은 까닭은 그 죄를 무겁게 하기 위함이다”³⁵⁾가 전부이다. 간찰을 중시하는 풍조는 예로부터 존재했거니와³⁶⁾ 상대적으로 수필보다 수첩을 우위에 두는 분위기는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3. 1830년 윤석 조인영과 1875년 소정 조성교의 발문

수필과 수첩은 19세기에 들어 두 명의 전라도관찰사에 의해 장황이 개수되었다. 아래 글은 수필 후미에 수록된 윤석(雲石) 조인영(趙寅永, 1782-1850)의 발문이다. 1830년 2월에 작성된 것으로 두 첩에 대해 개괄한 뒤 수필의 개장(改粧) 경위를 적고 있다.

- ① 기재 안공의 휘는 處順으로 기묘사립이다. 그 후손이 南原에 세거하는데 아직까지 그 당시 명현의 필첩을 보존하고 있다고 한다. 내가 고을을 순행하는 길에 그것을 빌려다가 공경히 감상해보니, 대개 공과 더불어 주고받은 분은 靜庵·沖

33) 韓浚謙, 『柳川遺稿』, 「雜著」, 〈己卯諸賢書帖識〉. “幾齋公是余外家尊屬, 此余所以不揆庸淺, 得敘鄭重, 俾作傳家之寶云.”

34) 주석 20) 참조.

35) 韓浚謙, 『柳川遺稿』, 「雜著」, 〈己卯諸賢書帖識〉. “此外又有送公赴求禮別語一帖, 亦同時諸賢之所贈者. 獨恨南士華之詩, 亦廁其間, 不去之, 所以重其罪也.”

36) 李宗休(1761-1832), 『下庵文集』 권4, 〈題權教鍊家藏書帖後〉. “古人之最重書札者, 以其有故舊之情泠然可見, 則以數先生長德重望, 於翁如此拳拳者, 豈無所自而然哉!”

庵 이하 도합 20인이다. 簡札과 詩文으로 구분하여 크고 작은 두 개의 첩을 만들었는데, 西平 韓公의 서문과 河西 김선생의 친필 발문이 있었고, 표제를 쓴 사람은 石峯 韓公이고 배접을 한 사람은 五峯 李公이다.³⁷⁾

- ② 다만 그중에 작은 첩은 비교적 온전하지만, 큰 첩은 파손된 곳이 많아서 서둘러 改粧하지 않으면 장차 못 쓰게 될 형편이었다. 그러므로 삼가 五峯의 고사를 좇아 장인에게 명하여 重修하게 하고, 또한 함을 한 개 만들어 삼가 자물쇠를 채워 安氏 집안에 돌려주었다.³⁸⁾

조인영이 전라도관찰사에 제수된 것은 1829년(순조 29) 1월이다. 기묘 제현 필첩의 존재에 대해 익히 들어왔던 터라 조인영은 남원을 경유하는 길에 안처순 후손가에서 수첩과 수필을 빌렸다. 크기가 상이한 2개의 첩에 20명의 간찰과 시문이 수록되어 있었는데 하나는 간찰첩이고 다른 하나는 시문첩이었다. 크기가 큰 첩이 수필이고 작은 것은 수첩이다.³⁹⁾ 위 발문에 언급된 한준겸의 서문은 당시 수첩에 수록되어 있었고, 김인후의 친필 발문은 수필에 수록되어 있었다. 한호가 썼다는 제첩과 이호민에 의해 이뤄진 배접이 두 첩 모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수첩에만 해당하는지는 미상이다.⁴⁰⁾ 여하튼 큰 첩(수필)이 작은 첩(수첩)에 비해 손상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조인영은 이호민의 전례에 따라 장인을 시켜 새로 장정을 꾸몄으며 시간장치가 달린 보관함까지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수필 마지막 면의 장황기에는 ‘崇禎四己丑仲冬, 完營改粧’이라 적혀 있다. 전주에 있던 전라도 감영에서 1829년 11월에 수필을 개장했다는 의미다. 장차(張次)와 지질, 필체로 추정컨대 조인영이 1830년 2월에 발문을 찬술한 뒤 자필로 장황기를 썼을 것이다.

수필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림8과 같이 용지 뒷면에 푸른색으로 숫자가 적혀 있다.⁴¹⁾ 1829년 첩을 해체하고 재성첩하는 과정에서 작품의

37) 수필, 趙寅永 발문. “幾齋安公諱處順, 己卯人也. 其後孫世居南原, 尙保其當時名賢筆帖云. 余因行縣, 敬借而奉玩, 則蓋自靜·冲以下與公贈答者, 摠二十人. 以簡札, 以詩文, 分作大小兩帖. 有西平韓公之序·河西金先生之手跋, 而標題之者, 石峯韓公也, 楷付之者, 五峯李公也.” 이 발문은 『雲石遺稿』 권10에도 〈己卯名賢筆帖跋〉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38) 수필, 趙寅永 발문. “第其小帖稍完, 而大帖多弊破, 不亟改將壞. 故竊附五峯故事, 命工重修, 且作一函, 謹鑄而還之安氏.”

39) 현전하는 수첩은 크기가 38×27cm이고 수필은 50×37.7cm이다.

40) 제첩과 배접에 관한 조인영의 기술은 한준겸 서문에 의거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이호민 주도의 배접은 수첩에 한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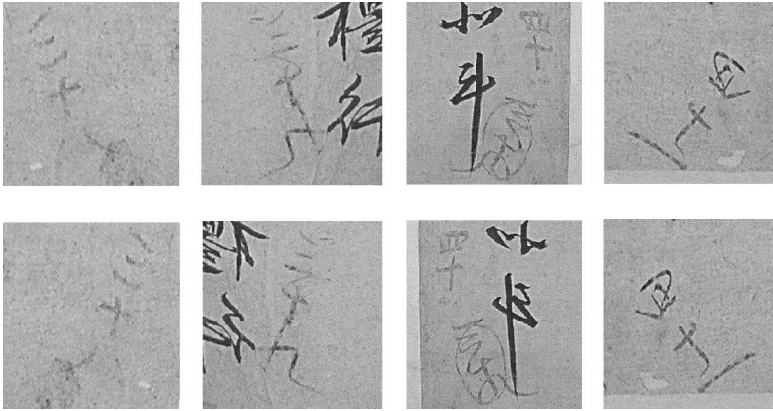


그림8-수필 종이 뒷면의 숫자(좌로부터 38, 39, 40, 41)

순서를 혼동하지 않기 위해 세필로 적어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숫자를 통해 개장하기 이전 수필의 차제를 짐작할 수 있다.

숫자가 뒷면에 적혀 있기 때문에 좌우가 반전된 채 희미하게 보인다. 따라서 좌우를 뒤집어 확대하면 그림8의 아래쪽에 제시한 바와 같이 숫자를 판독할 수 있다.⁴²⁾ 그림9의 도판 중에 가운데 이미지는 김인후 친필 서문에 열비치는 숫자를 확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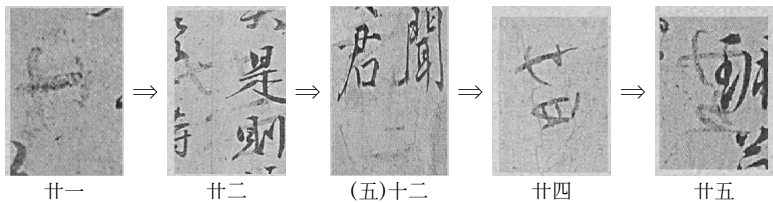


그림9-김인후 서문(가운데)과 전후 작품 뒷면의 숫자

김인후 서문은 두 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두 번째 쪽의 이면에 ‘□+二’라 적혀 있다.⁴³⁾ 김인후 글의 바로 앞에 ‘卅一’, ‘卅二’라 적힌 지면이 차제되어 있고, ‘卅四’, ‘卅五’라 적힌 지면이 그 뒤로 이어진다. 적어도

41) 일부 페이지는 숫자가 비치지 않는다.

42) 그림8의 아래쪽 세 번째 이미지는 ‘三十九’를 ‘四十’으로 고친 흔적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43) 수필의 전체 쪽수를 고려했을 때 ‘□+二’의 ‘□’는 ‘五’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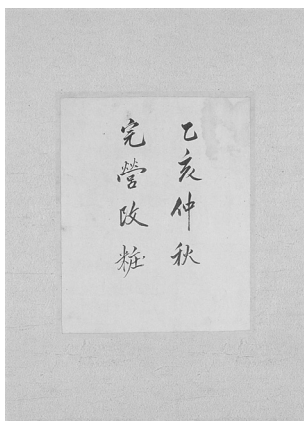


그림10-수첩 장황기(18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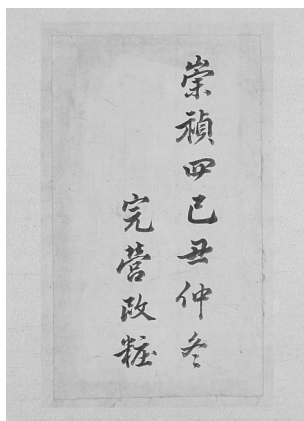


그림11-수필 장황기(1829)

1829년 수필을 개장하기 이전에는 김인후의 서문이 수필 후반부에 수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조인영이 수필을 개장하고 나서 40여 년이 지난 1873년(고종 10)에 소정(韶亭) 조성교(趙性敎, 1818-1876)가 전라도관찰사에 임명되었고 임기를 채우기 직전인 1875년 가을에 수첩과 수필을 열람하게 되었다. 그는 정암 조광조의 11대손이므로 그 감회가 남달랐다.⁴⁴⁾

아아! 소자가 차마 이 첩을 읽을 수 있겠는가! 이 첩은 기묘제현의 大全이다. [...] 첩은 도합 두 책인데 세월이 오래되어 손상되자 雲石 趙相公(필자주: 趙寅永)이 전라감사를 역임할 때 특히 심하게 손상된 책 하나를 새로 배접한 적이 있다. 소자가 경건히 열람한 뒤, 장인에게 명하여 그 일을 이었고 몇 마디 말을 써서 돌려보냈다.⁴⁵⁾

추정진대 조성교가 열람할 때 2개의 첩은 조인영이 만들어준 함 속에 담겨 있었을 것이다. 수필은 이미 개장이 이루어진바, 조성교는 조인영의 전례를 계승하여 수첩을 대상으로 새로 장황을 꾸몄고 ‘乙亥仲秋, 完營改粧’이라 적힌 장황기를 수첩 마지막 면에 붙였다(그림10). 물론 발문과 장황기는 동년 8월, 조성교에 의해 흰색 종이 위에 씌어졌다.

19세기 후반 무렵, 수필에 수록된 기묘제현의 필적을 타인이 가져간

44) 발문 말미에 “崇禎紀元後五乙亥, 靜菴先生十一代孫, 都巡察使性敎敎書”라 적혀 있다.

45) 수첩, 趙性敎 발문. “嗚呼! 小子尙忍讀此帖耶! 此帖卽己卯之大全也. [...] 帖凡二冊, 歲久而漫, 雲石趙相公按是道也, 營繕新其尤甚一冊. 小子敬覽訖, 命工續其功, 揮而歸之.”

사례가 다시 확인된다.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 1836-1905)이 수필에 실린 조광조의 〈송순지남행(送順之南行)〉 5수 가운데 세 번째 작품을 안처순의 후손 태진(泰鎭)과 태섭(泰燮)을 통해 입수하여 가져가고, 자신의 필치로 해당 시편을 대신 써주었다.⁴⁶⁾ 우암 송시열의 9대손인 송병선은 1895년 안태섭과 안태진의 부탁으로 안처순 묘갈명을 써주었고⁴⁷⁾, 1897년 안태섭의 촉탁으로 『죽계세적(竹溪世蹟)』 서문을 찬술한 바 있다.⁴⁸⁾ 당시 두 편의 글을 부탁하면서 답례의 표시로 조광조 진적(眞跡)을 전해준 것으로 추정된다.⁴⁹⁾

연초재(燕超齋) 오상렴(吳尙濂, 1680-1707)의 문집에 “지금 기재공의 후예가 대방(帶方)(필자주: 남원)에 거처하는데 이 첩을 대대로 전하며 가보로 여기고 있다. 이후에 정암 선생의 7대손인 원봉(遠朋)이 대방의 수령을 역임할 때 이 첩을 나누어 두 가문에서 소장하기를 요구했다고 한다”라는 기록이 보인다.⁵⁰⁾ 기묘제현의 친필은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고, 이러한 현상은 시대나 당색을 초월했다. 더욱이 심임조(沈仁祚)나 조원봉(趙遠朋)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묘제현 후손의 경우는 수첩과 수필에 대한 욕심이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III. 『기묘제현수필』과 『기묘제현수첩』의 모사본 제작

1. 1601년 직후, 희암 현덕승의 『선유서간(先儒書簡)』

전술한 것처럼 한준겸이 필첩을 한양에 가져온 것은 1601년(선조 34)이다. 바로 그해에 희암(希菴) 현덕승(玄德升, 1564-1627)도 필첩을

46) 수필, “靜菴先生書贈思齊堂詩五首中一首, 得于安君泰鎭·泰燮, 以看寶藏, 寫本文, 使徵於後. 恩津宋秉璿.”

47) 宋秉璿, 『淵齋集』 권34, 〈思齊堂安公【處順】墓碣銘〉.

48) 宋秉璿, 『淵齋集』 권23, 〈竹溪世蹟序〉. 『죽계세적』은 竹巖公 安瑒, 梅潭公 安昌國, 淸溪公 安瑛의 詩文을 수습하여 엮은 책이다.

49) 조광조의 〈送順之南行〉 가운데 其一과 其二, 혹은 其四와 其五도 친필이 아닌 듯하다. 수필에 실린 〈송순지남행〉을 검토해보면, 其一과 其二是 앞면에 실려 있고, 其四와 其五는 뒷면에 실려 있는데, 먹의 농담, 종이 크기, 지질 등이 확연하게 다르다.

50) 吳尙濂, 『燕超齋遺稿』 권5, 〈跋己卯諸賢尺牘〉. “今幾齋公後裔家帶方, 世傳是帖以爲寶. 後靜菴先生七世孫遠朋守帶方時, 求分爲二家之藏云.”

열람했고 추후에 이 첩을 간행·유포하는 데 적잖은 역할을 했다. 다음은 현덕승의 『희암유고(希菴遺稿)』에 수록된 『선유서간(先儒書簡)』 발문의 주석이다.

【이것은 기묘제현이 일찍이 주고받은 친필로서 후세에 현인을 앙모하는 자들이 의당 보배롭게 간직하는 것이다. 先正臣 河西 金麟厚가 이미 그 일을 기술하여 서문을 지었고, 公(필자주: 현덕승)이 발문을 써서 간행했는데 또한 공의 친필이다. 세월이 오래되면서 깎이고 결락되어 거의 전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기에 이에 기록해둔다.】⁵¹⁾

현덕승 문집을 간행하기 위해 제자인 서봉(西峯) 서정연(徐挺然, 1588-?) 이 시문을 가려 뽑은 뒤, 계곡(谿谷) 장유(張維)에게 발문까지 받았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가 1883년(고종 20) 8대손 현영익(玄永益, 1831-1884)의 교정 및 편차를 거쳐 1902년에 비로소 『희암유고』가 간행되었다. 위 주석은 19세기 후반에 문집을 편차할 때, 〈선유서간발문〉을 수록하면서 제목 아래에 기입한 것이다.⁵²⁾ 주석에 따르면 현덕승이 발문을 적은 책은 서명이 ‘선유서간(先儒書簡)’이고, ‘기묘제현이 일찍이 주고받은 친필(己卯諸賢所嘗往復之手筆)’을 싣고 있었다. 그리고 『선유서간』 간본에는 김인후의 서문과 현덕승의 친필 발문이 차제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현덕승이 열람한 것은 수첩이고, 수첩에는 김인후의 글이 수첩 모두(冒頭)에 서문 형태로 실려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현재 김인후의 글이 수필에, 그것도 첩의 앞뒤가 아닌 중간 부분에 실려 있는 점과는 사뭇 차이를 보인다. 아래 글은 현덕승 발문의 서두다.

옛날 신축년(1601, 선조 34) 한양에서 벼슬할 때, 同年⁵³⁾인 師古 洪遵이 희귀한 책을 다수 소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서둘러 가서 뒤적였다. 책상머리에 ‘己卯’라는 제목이 달린 粧貼이 있기에 펼쳐보니 바로 이 책이었다. 다른 책은 미칠 겨를도 없이 이 책만 소매에 넣어 가져왔다. 직분에 따라 쓸모없는 일에 얽매느라 일을 채 마치기도 전에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았다. 당시 나는 허름한 거처에서 가난한

51) 玄德升, 『希菴遺稿』 권4, 跋, 〈先儒書簡〉【此己卯諸賢所嘗往復之手筆, 而後世慕賢者之所當珍佩者也. 河西金先正麟厚既叙其事, 而弁卷之, 公跋其尾而刊布之, 亦公手書也. 年久刊缺, 幾乎無傳, 茲以登錄】.

52) 아래 주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집을 간행할 당시에 『선유서간』의 상태가 이미 좋지 않아, 현덕승 발문 중에 엉뚱한 글자로 옮겨 적은 곳이 몇 군데 보인다.

53) 원문의 ‘公年’은 ‘同年’의 誤字가 분명하다. 현덕승이 행초로 적은 발문을 그대로 판각했을 터인데, 문집 간행 시 결락된 부분이 많은 탓에 제대로 판독하지 못한 것이다.

나그네 신세로 거처했는데 역량이 딸리는 와중에 완성하기를 재촉하였다. 또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호젓한 전원에 칩거하고자 생각했기에 예전 현인의 글은 끝내 다시 만나기 어려웠다.⁵⁴⁾

1601년 한양에서 박봉을 받으며 벼슬살이하던 현덕승은 동년(同年)인 괴음(槐陰) 홍준(洪遵, 1557-1616)이 희귀본을 다수 소장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서둘러 그의 집으로 향했다.⁵⁵⁾ 여러 전적 중에서 ‘기묘(己卯)’라는 제첩이 붙어 있는 장첩이 눈에 띄었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니, 근간에 입수하거나 읽고 있던 책이 분명했다. 책장을 넘겨보자 다름 아닌 기묘제현의 필적이었다. 현덕승은 다른 책에는 시선 한번 주지 않은 채 이 첩만을 빌려 왔다. 고된 객지 생활의 와중에서도 옮겨 적는 일을 서둘렀고, 가까스로 전사(轉寫)를 마친 뒤 수첩을 돌려주었다. 이후로 예전 현인(前脩)의 친필을 다시는 친견하지 못했다.

【네 글자 결락】곤액을 만났고, 근년 이래 의욕이 전혀 없어, 집에 소장된 고금의 책에는 모두 먼지가 쌓이고 종이 슬었다. 때마침 고을 자제인 徐挺然이 가끔씩 학업에 대해 묻곤 했는데 무기력한 여가에 교학상장하는 자극이 있는 듯했다. 담론하는 사이에 얘기가 여기에 미치자, 서정연은 기빠서 필적 뛰며 나에게 힘써 휘갈겨 써달라고⁵⁶⁾ 부탁했다. 내가 병을 무릅쓰고 이것을 써서 보내주니, 서정연은 보배롭게 간직하다가 세상에 널리 전할 요량으로 장인을 모아 목판에 새겼다. 그러더니 이 첩을 얻어 와서 【두 글자 결락】한 연유에 대해 내 설명이 없을 수 없다고 말했다.⁵⁷⁾

이후 폐모론이 일어나자 1613년(광해 5)에 천안(天安) 용두리(龍頭里)로

54) 玄德升, 『希菴遺稿』 권4, 跋, 〈先儒書簡〉. “昔在辛丑, 薄遊京輦, 聞洪公年遵師古甫多藏未見書, 倒屣往索見. 床頭粧貼, 有題己卯者, 取展則此卷也. 他不暇及, 獨袖來, 隨分糾冗, 未及卒業, 督還投. 余時貧客焚次, 力屈催完, 又當歸興方滾, 村潛深伏陝, 前修文字, 更卒難逢.”

55) 洪遵은 어우 유몽인의 表兄이자 학곡 홍서봉의 삼촌이었다. 柳夢寅, 〈送表兄洪師古【遵】赴順天任所序〉(『於于集』 권3); 洪瑞鳳, 〈奉送洪師古叔氏赴順天〉(『鶴谷集』 권4) 참조. 당시 홍준은 상당한 분량의 고동서화를 소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李春英, 〈題洪師古所藏畫卷〉(『體素集』 상); 黃廷彧, 〈題亞使洪師古所藏鶴林畫帖〉(『芝川集』 권2) 참조.

56) 원문의 ‘蛇蚺’은 ‘蛇蚓’의 誤字가 분명하다.

57) 玄德升, 『希菴遺稿』 권4, 跋, 〈先儒書簡〉. “【缺四字】罹, 年來頓無意緒, 家藏今古文, 都付塵蠹而已. 適邑子徐生挺然, 時或問業, 頽塌之餘, 似有警發相益意思. 譚間偶及此, 聞之躍然, 丐我強驅蛇蚺, 力疾爲此而歸之. 徐生瑤蓄之, 已思欲流布, 募工入梓. 以此貼得來【缺二字】之由, 謂不佞不可無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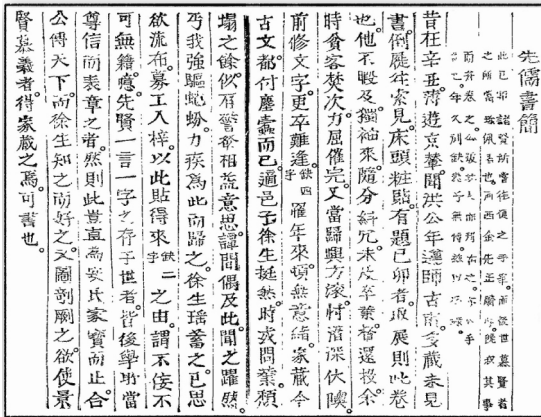


그림12- 〈先儒書簡〉(『希菴遺稿』 권4)

은거한 뒤 무기력하게 세월을 보냈다. 제자 서정연(徐挺然)과 담론하던 중에 우연찮게 수첩 얘기가 나왔다.⁵⁸⁾ 기뻐하며 필적 뛰는 제자의 간곡한 부탁에 현덕승은 병든 몸을 무릅쓰고 수첩을 써서 보내주었다. 제자는 그것을 애지중지 보관하다가 세상에 널리 전할 목적으로 장인을 모아 목판으로 간행했다. 그리고 현덕승에게 수첩을 입수하여 간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 발문을 써달라고 요청했다.⁵⁹⁾

현전하는 수첩은 기묘제현의 친필로서 1601년 직후에 한준겸, 강복성, 이호민, 한호 등의 손길을 거친 것이다. 당시 수첩을 돌려 본 사람 중에 홍준도 포함되어 있었고 현덕승은 홍준에게 이 첩을 빌려 사본을 만들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났을 무렵, 현덕승이 이 사본을 가지고 만든 또 다른 사본이 서정연에게 전해지며 간행의 저본으로 활용된 것이다. 원본 수첩이 유전되는 과정에서 여러 사본이 거듭 생산되는 장면을 유추하기에 충분하다.

현덕승이 만년에 제자에게 써준 수첩이 기묘제현의 필치를 그대로

58) 현덕승의 대표적인 제자로는 洪翼漢, 孫必大, 徐挺然 등을 꼽을 수 있다. 『希菴遺稿』 권4, 부록, 〈行狀略〉. “花浦洪學士, 自少受業, 畢竟樹立, 扶綱常於萬古, 孫公必大, 亦嘗負笈, 主盟詞垣, 擅獨步於一代. 世常稱得其節行者, 洪學士也, 得其文章者, 孫翰林也, 心悅誠服者, 沙峯先生也.”

59) 현덕승은 발문 말미에서 수첩의 가치를 부각시킨 뒤, 간행을 통해 수첩을 널리 유포한 제자 서정연의 뜻을 가상히 여겼다. 玄德升, 『希菴遺稿』 권4, 跋, 〈先儒書簡〉. “噫! 先賢一言一字之存于世者, 皆後學所當尊信而表章之者. 然則此豈直爲安氏家寶而止! 合公傳天下, 而徐生知之而好之, 又圖剗剗之, 欲使景賢慕義者, 得家藏之焉, 可書也.”

과거 시험명	성명	시험 종류	성적
선조 12년(1579) 기묘 식년시	강복성	진사	2등 22위(27/100)
	한준겸	생원	1등 1위(1/100) 장원
		진사	2등 4위(9/100)
	이호민	생원	2등 14위(19/100)
		진사	1등 1위(1/100) 장원
	홍준	생원	3등 26위(56/100)
선조 23년(1590) 경인 증광시	홍준	문과	병과 10위(20/40)
	현덕승	문과	을과 1위(4/40)

임모(臨摸)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개성을 발휘해서 썼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후대에 다른 사본이 만들어지는 양상을 고려한다면 임모했을 가능성이 지배적이나, 현덕승도 당대에 글씨로 명성이 높았던바 단언하기 어렵다. 현덕승은 어려서부터 글씨 연습에 몰두하여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 1603년(선조 36) 장흥통판(長興通判)을 역임할 때 석봉(石峯) 한호(韓濩)가 그의 필법에 놀란 나머지 나흘 동안 함께 머물며 필예를 겨룬 적도 있다. 이에 현덕승 집에는 석봉의 필적이 다수 소장되어 있었다고 한다.⁶⁰⁾

두 첩의 가치를 인식하여 그 존재를 한양에 알리는 데 일조한 사람은 한준겸, 강복성, 이호민이다. 이채로운 점은 현덕승에게 기묘제현의 필첩을 빌려준 홍준이 위 세 사람과 동년이라는 사실이다. 강복성은 1579년(선조 12) 기묘 식년시에서 진사에 입격했고, 이호민과 한준겸도 동년 식년시에서 생원과 진사에 모두 합격했으며, 홍준은 생원시에 입격했다. 특히 이호민은 진사시 장원이었고 한준겸은 생원시 장원이었다. 그리고 홍준과 현덕승도 1590년(선조 23) 증광 문과에 함께 급제한 동년이였다. 필첩의 유전과 확산에 동년이라는 인적 네트워크가 상당 부분 작용했던 것이다.

60) 『希菴遺稿』 권4, 부록, 〈行狀略〉. “欲習字, 而無以辦文房之具, 於三束紙, 以墨筆寫之者三, 以朱筆寫之者三. 後逢韓石峯於逆旅, 見先生筆法大異之, 仍到先生家, 留四日, 與之較藝. 以故石峯手筆, 多在先生家. 事在癸卯年間, 而先生爲長興通判時.”

2. 1601년 직후, 석봉 한호의 『기묘제현서독(己卯諸賢書牘)』

강복성이 이호민과 상의하여 수첩을 꾸미고 한호에게 제첩을 쓰게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조선 최고의 서예가인 한호는 제첩을 쓰는 데 그쳤을까? 다음은 연경재(研經齋)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이 찬한 <제기묘제현서독후(題己卯諸賢書牘後)>이다.

上舍 徐聖觀이 한석봉이 임서한 『기묘제현서독』을 보여주었다. 趙靜菴과 金沖菴, 崔新齋의 편지가 한 편씩이고, 이 밖에 ‘沖’이라 적은 것, ‘籠中子’라 적은 것, ‘仰’이라 적은 것이 한 편씩 있었는데 그 이름을 분명히 알 수 없다. 내 생각에 ‘충’은 충암으로 추정된다. 그는 자가 ‘元沖’으로 액운의 시기를 만났으므로 그 이름을 숨겼으리라. 편지 본문 중에 ‘바닷가에 이르러 중풍이 들었다(到海濱中風)’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제주에 찬배된 시기였을 것이다.⁶¹⁾

성해응이 서성관(徐聖觀)을 통해 열람한 것은 『기묘제현서독』이다. 거기에 수록된 기묘제현의 편지 6편은 모두 한석봉이 임서한 것이다. 3편은 조광조·김정·최산두(崔山斗)의 편지가 분명했고⁶²⁾, ‘沖’, ‘籠中子’, ‘仰’이라 적힌 것은 저자가 미상이었다. 다만 김정의 호가 ‘충암(沖菴)’이고 자가 ‘원충(元沖)’이므로 ‘충’이라 적힌 편지는 김정이 쓴 것으로 추정했다. 편지 속에 보이는 ‘바닷가에 이르러 중풍이 들었다(到海濱中風)’는 표현도 김정의 제주 찬배 시기를 묘사하는 듯했다. 성해응이 김정 작품으로 비정한 편지는 바로 그림13인데, 이 편지를 저본으로 한석봉이 임서한 작품이 『기묘제현서독』에 실렸던 것이다. ‘도해빈중풍’이란 표현이 네모 박스 안에 보이고, 편지 끝에 ‘원충이 돈수합니다(沖頓)’라 적혀 있다.

한편 ‘籠中子’, ‘仰’이라 적힌 2편의 편지에 대해 성해응은 저자를 비정하지 못했다. 그림14는 수첩에 실린 해당 편지다.

61) 成海應, 『研經齋全集』續集 책11, 文三, <題己卯諸賢書牘後>. “徐上舍聖觀, 示韓石峯所臨己卯諸賢書牘, 趙靜菴·金沖菴·崔新齋各一幅, 又曰沖, 曰籠中子, 曰仰, 各一幅, 未詳其名. 竊意沖卽沖菴, 字元沖, 當禍變之際, 諱其名也. 書中有‘到海濱中風’之語, 豈其竄濟州時歟!”

62) 수첩을 살펴보면 조광조의 편지는 ‘孝直’(字), ‘光祖’로 적혀 있고, 김정의 편지는 한 편을 제외하고는 ‘淨’으로 적혀 있으며, 최산두의 편지는 몇 통을 제외하고는 ‘景仰’(字), ‘新齋’, ‘山斗’, ‘病斗’로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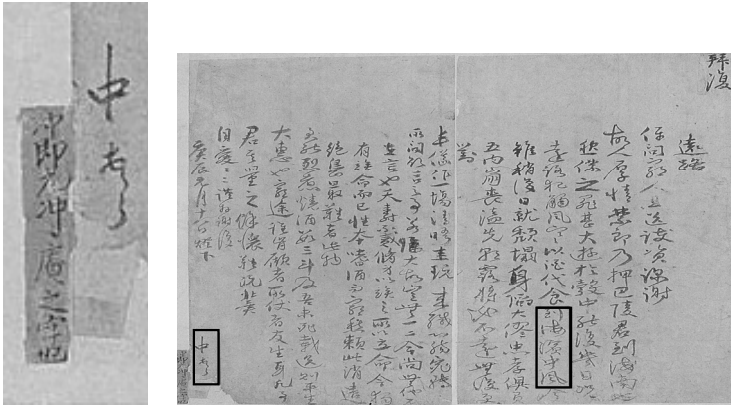


그림13-수첩에 수록된 김정 간찰. 1520년(중종 15) 1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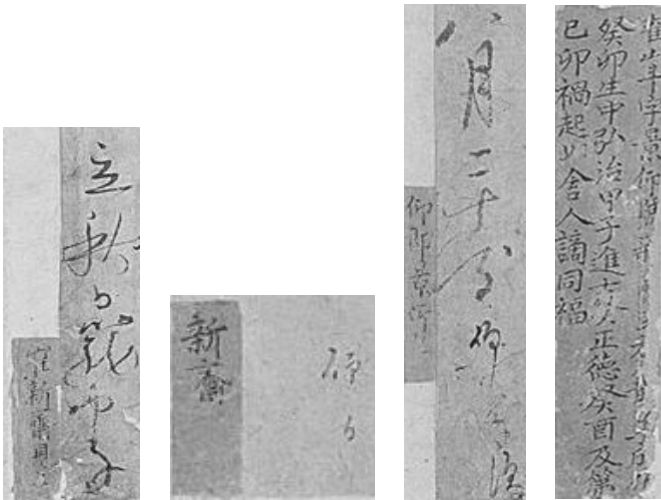


그림14-최산두 간찰 중에 ‘仰’, ‘籠中子’가 적힌 부분(좌 1, 2, 3)과 인척 사항을 적은 첨지(우 1)

왼쪽부터 ‘立秋日 籠中子’, ‘仰白’, ‘八月二十八日 仰草復’이라 적혀 있고, 맨 오른쪽 첨지의 오른쪽 행에는 ‘崔山斗, 字景仰, 號新齋 · □□ · 籠中子, 成化’라 적혀 있다. 박학의 기저 위에 고증학적 학문체계를 구축한 성해옹조차 최산두 편지에 적힌 ‘仰’과 ‘籠中子’의 함의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시 한호가 제첩만 쓴 것이 아니라 기묘제현의 필첩도 임서했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임서한 편지는 성해옹이 보았던 6편에 국한되지 않고 필첩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것이다. 성해옹은 발문 끝에서

“기묘제현의 친필은 비록 볼 수 없으나 석봉이 임시하여 본뜬 것으로 그 일부를 얻을 수 있었다. 아! 후세에 양모하는 것이 어찌 필획이라는 지엽적인 것에 국한되었는가! 여러 현인의 심획을 석봉이 임시했으니, 두 가지 아름다움의 조합이라 이를 만하다”⁶³⁾라 말하며 한호 임시본 『기묘제현서독』의 가치를 고평했다. 기묘제현 필첩의 중요성은 비단 서예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요, 글씨는 마음의 획이다. 소리와 획이 드러나면 그 사람이 군자인지 소인인지 알 수 있다”는 양웅(揚雄)의 말처럼⁶⁴⁾ 심획을 통해 제현의 위인을 떠올리며 귀감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호의 필치로 임시했다는 점은 『기묘제현서독』의 가치를 배가하기에 충분하다.

3. 1601년 이후, 석곡 조박의 『기묘제현간첩(己卯諸賢簡帖)』

17세기 중반 무렵에도 동주(東洲) 이민구(李敏求, 1589-1670)가 수첩 모사본을 보고 소회를 적은 〈조숙온모기묘제현간첩발(趙叔溫摸己卯諸賢簡帖跋)〉이라는 글이 전한다.

安氏(필자주: 安處順)가 裒錄한 簡帖과 詩詞를 살펴보건대 모두 당대 명현들의 손에서 나왔으니, 어찌 후대의 사관들이 그 사적을 추술한 것과 나란히 논할 수 있겠는가! [...] 趙君 叔溫(필자주: 趙璞)은 옛것을 좋아하는 선비로서 손수 베껴 적은 뒤 날마다 좌우에 두고 아득히 사모하며 심중한 뜻을 부쳤다. 그 필세가 청정하고 완미하여 黃太史(필자주: 黃庭堅)보다 못하지 않으니 또한 공경할 만하다.⁶⁵⁾

발문에 의하면 석곡(石谷) 조박(趙璞, 1577-?)⁶⁶⁾은 고동서화를 좋아한 인물이었다. 그는 1603년(선조 36) 생원시에 입격하고 1606년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했는데, 기묘제현 필적을 손수 모사(摹寫)한 뒤 늘 곁에

63) 成海應, 『研經齋全集』 續集 책11, 文三, 〈題己卯諸賢書牘後〉. “諸賢眞跡, 雖不可見, 以石峯之所臨倣者, 可得其一二. 噫! 後之慕仰, 豈獨在點畫之末哉! 以諸賢之心畫, 爲石峯之所臨, 可謂兩美之合.”

64) 揚雄, 『法言』, 「問神」 권5. “言心聲也, 書心畫也. 聲畫形, 君子小人見矣.”

65) 李敏求, 『東洲集』 권3, 〈趙叔溫摸己卯諸賢簡帖跋〉. “觀安氏所裒錄簡帖及詩詞, 皆出於一時名賢之手, 豈與夫後代史氏追述其事蹟者爲比而並論哉! [...] 趙君叔溫, 好古士, 自爲摹寫, 日置諸左右, 長懷遠慕, 託寄深矣. 其筆勢清婉, 不減黃太史, 又可敬也.”

66) 趙璞의 본관은 豐壤, 자는 叔溫, 호는 石谷이다. 그는 조위한, 김상헌, 이안눌, 임숙영, 장유, 이민구, 정백창, 이명한 등과 교유했는데 이들의 문집에 관련 시편이 다수 전한다.

두고 좌우명처럼 여겼다고 한다. 조박의 필세를 황정건에 비견한 것으로 보아, 서에 방면에도 조예가 깊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민구는 발문을 써주면서 첩의 제목을 ‘기묘제현간첩(己卯諸賢簡帖)’이라 적시했다. 하지만 발문 서두에서 안처순이 수집한 기묘제현 간찰과 시편을 함께 언급한 것으로 보아, 조박이 베껴 쓴 『기묘제현간첩』에는 수첩과 수필이 모두 수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⁶⁷⁾ 그리고 조박이 수첩을 모사할 때 수첩 원본을 저본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이유는 1601년 현덕승에게 수첩을 빌려준 홍준(洪遵)이 바로 조박의 처부이기 때문이다.⁶⁸⁾ 한준겸이 기묘제현 필적을 한양에 소개하고 나서, 동년이나 혼반 등 다양한 인적 관계망 속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갔음은 첩언의 여지가 없다.

4. 1601년 이후, 탄옹 이현의 『기묘제현서첩(己卯諸賢書帖)』

이민구가 조박의 모사본에 발문을 작성할 즈음에 동계(桐溪) 정온(鄭蘊, 1569-1641)도 탄옹(灘翁) 이현(李紘, 1584-1637)이 모사한 기묘제현의 서첩(書帖)에 발문을 적었다.⁶⁹⁾ 발문의 제목은 <이자장소서기묘제현서첩발(李子章所書己卯諸賢書帖跋)>이다.

병자년(1636) 봄에 나는 한양에서 수개월째 앓고 있었다. 어느 날 參知李子章(필자 주: 李紘)이 찾아와 문병하더니 책자 한 권을 보여주었는데 바로 기묘제현 수첩이었다. 나에게 그 발문을 지어달라고 요청하기에 내가 비록 글재주는 없으나 그 아래에 이름을 붙이는 것을 매우 영예롭게 여기며 마침내 사양하지 않았다. [...] 지금 제현들과 100여 년이나 떨어져 있지만, 그 기풍을 듣게 되면 흥기하여 감격하지 않는 자가 없다. 허물며 이 필적처럼 완연히 남아 있는 경우에야! 지금 子章이 그 원본을 얻기 어려운 점을 염려하여 손수 모사하되 그 서체를 그대로 모방함으로써 보는 자로 하여금 마치 진본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였다. 그 서법이 신묘한 경지에

67) 후술하겠지만 都慶俞가 모사한 『己卯諸賢書牘』도 제목에는 ‘서독’이라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수첩과 수필이 모두 전사되어 있다.

68) 柳夢寅, 『於于集』 권3, 〈送湖西李觀察使稱念湖中親舊序〉. “其居林川者, 有余表兄東萊府使洪遵女爲進士趙璞妻, 皆以京城之蟬聯茂族, 挈挈避亂于茲, 甚可憐.”; 『國朝文科榜目』(규장각 소장본, 奎106) 참조. 한편 조박이 1625년(인조 3) 2월 나주목사로 부임했을 때 수첩과 수필을 열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9) 발문 말미에 작성 시점이 ‘皇明崇禎丙子’, 즉 1636년으로 적혀 있다. 여기서의 ‘書帖’은 서간첩이 아닌, 筆跡·墨跡의 의미로 여겨진다. 같은 해에 도경유가 이현 모사본을 옮겨 적은 『己卯諸賢書牘帖』에는 수첩과 수필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

들어갔고 모사한 것이 짙진할 뿐만 아니라, 옛사람을 사모하고 현인을 숭상하는 마음이 근질하기 그지없다.⁷⁰⁾

1636년(인조 14) 봄, 참지(參知) 이현은 병문안 차 몇 달째 와병 중인 부제학 정운을 찾아가서, 본인이 직접 모사하여 첩으로 만든 기묘제현의 서첩을 보여주며 발문을 요청했다. 제현의 필적 아래에 이름을 올리는 것 자체가 영광인지라 정운은 흔쾌히 수락했다. 이현이 ‘손수 베끼되 그 서체를 그대로 모방한(手自繕寫, 而皆倣其體)’ 까닭은 서첩 원본을 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현은 이미 당대에 글씨로 이름이 높았기에⁷¹⁾ 원본에 필적할 만큼 짙진하게 모사함으로써 기묘제현과 그 목적에 대한 경외심을 드러냈다. 그렇다면 이현이 서첩을 접하게 된 경로는 무엇일까? 아마도 조박과의 친분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홍준의 사위가 조박이고, 이현은 조박의 사마시 동년이었다.⁷²⁾



그림15- 〈李子章所書己卯諸賢書帖跋〉
(『桐溪集』 권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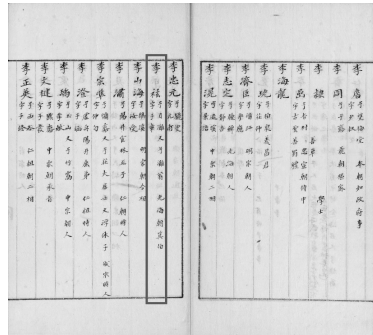


그림16- 『筆苑』(버클리대학교 소장본),
‘本朝’條

- 70) 鄭蘊, 『桐溪集』 권4, 〈李子章所書己卯諸賢書帖跋〉. “丙子春, 余臥病都下且數月。一日, 李參知子章扣蓬扉問疾, 仍投一卷冊子, 乃己卯諸賢手帖也, 求余跋其後。余雖無文, 深以托名其下爲榮耀, 遂不辭。[...]. 今去諸賢, 百有餘年, 而聞其風者, 莫不興起而感發焉。況此手跡之宛然者乎! 今子章嫌其本體之難得也, 手自繕寫, 而皆倣其體, 使見之者, 依倂若眞跡之在茲, 不但其書法之入妙, 模效之逼真而已, 其慕古尚賢之意, 斯亦勤矣。”
- 71) 이현은 1630년에 『穆陵誌』를 썼고 2년 후에는 國葬都監 書寫官을 지내기도 했다. 『筆苑』(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소장본) ‘本朝’조에 조선을 대표하는 서예가로서 이름을 올렸다.
- 72) 조박은 1603년(선조 36) 생원시에 입격하고 이현은 동년 진사시에 입격함으로써 동년이라는 끈끈한 유대를 맺게 되었다. 동일한 小科에서 합격한 생원 100명과 진사 100명은 모두 동년으로 일컬어졌다. 河受一, 『松亭集』 권4, 〈三洞榜會序〉. “朝廷用文字取士, 每三歲大比, 大比之明日, 新進之士, 或二百, 或三十有三人, 輒會于此, 以話同年, 其來久矣.”

아울러 15년이라는 적잖은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이현이 정온에게 『기묘제현서첩』 발문을 요청한 것도 두 사람이 문과 동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⁷³⁾

5. 1636년, 낙음 도경유의 『기묘제현서독(己卯諸賢書牘)』

1636년 3월, 이현은 관향사(管餉使)에 제수되어 평안도로 부임했고, 당시 평양부윤(平壤府尹)을 역임하던 낙음(洛陰) 도경유(都慶兪, 1596-1637)를 찾아가서 본인이 모사한 기묘제현 서첩을 보여주었다. 물론 여기에는 얼마 전 정온에게 받은 발문이 붙어 있었다.

내가 평양부윤을 역임하며 성곽 서쪽에서 전염병을 피하고 있을 때, 度支(필자주: 管餉使) 李灘翁(필자주: 李炫)이 기묘제현 書尺을 베껴 적은 서첩 하나를 나에게 보여주면서 “제현의 친필 원본은 세상에서 다시 얻기 어려운 법이네. 내가 편지마다 그 서체를 모방한 것이 비록 필진하진 않아도 개인적으로 사모하고 숭상하는 보배로 삼기에는 충분하지”라 말했다. 그 서첩 아래에 八溪(필자주: 草溪) 鄭都憲(필자주: 大司憲 鄭蘊)이 지은 발문이 있었다. 탄옹이 그 글씨를 사모하여 그 사람을 사모하고, 그 사람을 사모하여 그 도를 사모한다는 뜻으로 발문을 지어 찬미하되, 서체를 모방하여 쓴 점을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 사람을 사모하여 그 도를 사모하는 것은 내가 비록 탄옹에게 미치지 못하나, 제현의 필적을 본떠서 평생토록 애호하려 하는 것은 바로 탄옹과 같은 마음이다. 이에 졸렬한 솜씨를 망각한 채 베껴서 스스로 소장하는 바이다. 황명 승정 9년(1636, 인조 14) 병자 7월에 洛陰이 쓰다.⁷⁴⁾

도경유는 이현이 친필 원본을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수 모사했다는 기묘제현 간찰첩을 열람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 역시 이현처럼 제현의 필적을 베껴 써서 평생토록 간직하고 싶었다. 이에 이현 모사본 전체를 재차 모사한 뒤, 그 경위를 기술한 것이 위에 인용한 <발기묘제현서독후(跋己卯諸賢書牘後)>이다. 위 발문에 따르면 이현과 도경유가 모사한

73) 1610년(광해군 2) 별시에서 정온과 이현은 각각 乙科 2위(3/20), 丙科 6위(10/20)로 급제했다. 당해 시험에서 한문사대가의 일원인 澤堂 李植도 병과 4위(8/20)로 등제한 바 있다.

74) 都慶兪, 『洛陰文集』 권3, <跋己卯諸賢書牘後>. “余以箕城尹, 避疫于城西, 李度支灘翁, 以己卯諸賢書尺, 摸寫一帖, 視余曰, ‘諸賢手迹之本體, 難以再得於世. 我其各倣其體, 雖未得逼真, 而足爲我慕尚之一寶.’ 其帖下八溪鄭都憲, 以灘翁慕其書而慕其人, 慕其人而慕其道之意, 爲跋以美之, 不以倣體摸寫爲不可, 則其於慕其人慕其道, 雖未及於灘翁, 而其依樣諸賢之筆跡, 以爲一生之愛玩者, 卽灘翁之心也. 忘其筆拙, 寫以自藏. 皇明崇禎九年丙子孟秋, 洛陰書.”

것은 기묘제현의 ‘서척(書尺)’과 ‘서독(書牘)’, 즉 간찰이다. 하지만 성주도씨(星州都氏) 병암종중(屏巖宗中)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경유 모사본 『기묘제현서독첩(己卯諸賢書牘帖)』을 확인해보면, 수첩뿐만 아니라 수필까지 모두 실려 있다. 그럼에도 간찰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수필보다 수첩을 중시했던 당시 분위기를 반영한다. 이러한 실례를 통해 현덕승, 한호, 조박 등의 모사본도 제목에서는 ‘서간(書簡)’, ‘서독(書牘)’, ‘간첩(簡帖)’, ‘서첩(書帖)’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필까지 모두 옮겨 적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경유는 자신의 필체로 썼을까? 아니면 제현의 필적을 모사했을까? 다음은 도경유의 〈연보〉에 실린 해당 기사다.

승정 9년(1636) 병자【선생 41세】 7월

『己卯諸賢書牘帖』 뒤에 발문을 쓰다. 【당시 선생은 성곽 서쪽에서 전염병을 피하고 있었는데, 灘翁 李相公 耘(필자주: 耘의 誤字)이 손수 베낀 기묘제현의 간찰첩 하나를 가져와 보여주었다. 대개 선생의 필법을 평소 잘 알았기에, 또다시 모사하여 제현의 서법을 널리 전하라는 취지였다. 선생은 흔쾌히 붓을 잡은 뒤 제현의 필체대로 모사했고, 그 글씨를 사모하고 그 사람을 사모하고 그道を 사모한다는 뜻으로 발문을 짓고는 책상자에 보관했다.】⁷⁵⁾

‘그 필체를 각기 모사했다(各摹其體)’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도경유도 한호, 조박, 이현의 경우처럼 제현의 필적을 그대로 본떠서 필사했다. 아울러 이현 모사본을 저본으로 재차 모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18처럼 그 서체가 친필 원본과 매우 방불하다. 도경유는 자수(字數), 행간이나 자간의 폭까지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제현의 서체를 그대로 재현하려 애썼다. 그리고 저본에 적혀 있던 인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나 주석까지 똑같이 옮겨 적었다. 따라서 17세기 전반기 필첩의 원형을 연역하는데 도경유 임서본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다. 제현의 필적을 임서하여 모사본을 만드는 것은 서예에 대한 조예와 자부심이 있어야 가능했다.⁷⁶⁾

75) 都慶俞, 『洛陰文集』 권4, 부록, 〈年譜〉. “崇禎九年丙子【先生四十一歲】七月. 跋己卯諸賢書牘帖後【時, 先生避疫于城西, 李相公灘翁耘, 以其自摹己卯諸賢書牘一帖, 來示. 蓋素知先生筆法, 而冀復摹寫, 使諸賢書法, 以爲廣傳之意也. 先生欣然把筆, 亦各摹其體, 又以慕其書·慕其人·慕其道之意爲跋, 藏于篋焉.】”

76) 都慶俞, 『洛陰文集』 권5, 〈家狀〉. “公尤精於筆法, 鍾王諸帖, 臨寫逼真. 李灘翁耘, 愛公心畫, 以其自摹己卯諸賢書牘一帖, 來示之, 其意以爲慕其書, 慕其人, 慕其道, 而冀其意中之人也. 公欣然把筆, 亦各倣其體, 爲小跋, 識其尾, 藏于篋焉.” ‘李灘翁耘’은 ‘李灘翁 耘’의 誤字다.

아울러 모사 자체가 제현의 심획(心劃)을 재연하는 신성한 행위였으며 제현을 향한 존숭과 헌정의 의미도 담겨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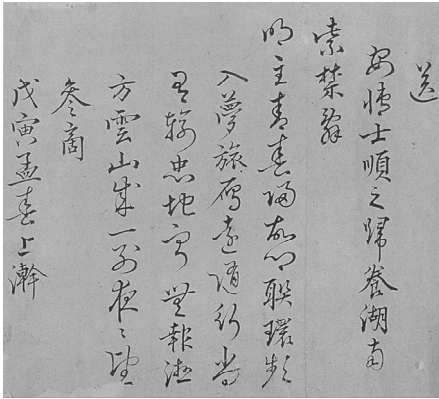


그림17-수필, 심인조 書, 신광한 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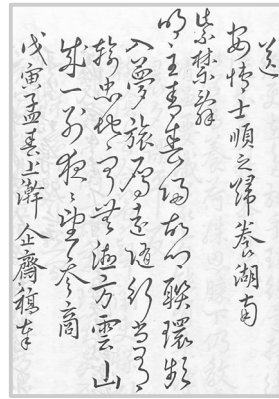


그림18-『己卯諸賢書讀帖』,
도경유 書, 신광한 한시

6. 17세기 중반, 창강 조속의 『기묘제현첩(己卯諸賢帖)』

창강(滄江) 조속(趙淩, 1595-1668)은 시서화삼절(詩書畫三絶)로 일컬어진 인물로서 허목(許穆), 이경석(李景奭), 윤선거(尹宣舉), 이유태(李惟泰), 송시열(宋時烈) 등과 교유했다. 그 역시 기묘제현의 필적을 임서하여 첩을 만들었고, 조속 임서본을 감상한 우암 송시열(1607-1689)은 1659년(효종 10) 11월에 <창강조장림기묘제현첩발(滄江趙丈臨己卯諸賢帖跋)>을 써 주었다.

창강 조씨 어르신은 물건에 대해 좋아하는 게 없는데 오직 遺文과 문헌만큼은 남김없이 망라하여 가지고 있다. 때론 글 때문이고 때론 필적 때문이며 때론 그 사람 때문이고 때론 그것이 오래되어 희귀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己卯帖’이라는 것은 이 모두를 겹쳤다고 이를 만하다. [...] 조씨 어르신은 일찌감치 서예에 몰두했는데 마침내 그 첩을 임서했을 때 제현의 글씨가 처음부터 마음에 합치되지 않음이 없었다. 비록 서예의 오묘함일지라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돈독하고 깊었기 때문에 이처럼 제현의 心劃을 각각 얻은 것이다.⁷⁷⁾

77) 宋時烈, 『宋子大全』 권146, <滄江趙丈臨己卯諸賢帖跋>. “滄江趙丈, 於物無所好, 獨遺文古事, 網羅無遺. 或以文, 或以筆, 或以其人, 或以其古而稀也. 惟所謂己卯帖者, 可謂



그림19- 〈滄江趙丈臨己卯諸賢帖跋〉
(『宋史大全』 권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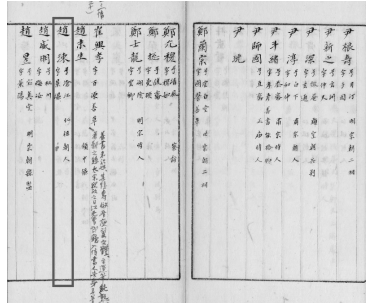


그림20- 『筆苑』(버클리대학교 소장본),
‘本朝條’

송시열은 옛 진적(眞跡)과 고문헌에 대한 조속의 수집벽을 기술하고 나서⁷⁸⁾ 그가 임서한 ‘기묘제현첩’의 가치를 네 가지로 명료하게 설명했다. 즉, 글이 뛰어나고(文), 글씨가 뛰어나고(筆), 그 사람이 뛰어나고(其人), 그것이 오래되어 희귀하다는(其古而稀) 점을 언급하며 기묘제현첩의 가치를 요약했다. 그리고 조속이 서예에 대한 열정과 기묘제현에 대한 숭모의 뜻을 견지했기에, 제현의 심획을 고스란히 구현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당시 송시열이 열람한 조속 임서본 ‘기묘제현첩’에는 김인후의 서문이 첫머리에 수록되어 있었다.⁷⁹⁾ 이를 통해 추정컨대 1601년 한준겸이 수첩과 수필을 한양으로 가져와 벗들과 둘러보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임서본을 조속이 추후 열람한 뒤, 그것을 저본으로 모사했을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조속이 모사에 사용한 저본에는 한준겸의 서문이 실려 있지 않았을 것이다.⁸⁰⁾ 그리고 도경유 모사본의 경우처럼 조속 임서본에도 수첩에 수록된 서간과 수필에 수록된 전송시문이 모두 포함되

兼之矣。[…] 趙丈早有臨池癖，遂臨其帖，各家之書，無爽於初。雖其筆藝之妙，而亦其好之篤愛之深，故各得其心畫也如此。”

78) 조속은 우리나라의 필적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金石清玩』이라는 서첩을 만들기도 했다. 李景奭, 『白軒集』 권32, 題後, 〈題滄江趙希溫【涑】金石清玩後〉. “滄江趙希溫甫處城市而志在物表，蓋皎皎然襟懷冰雪者也。游藝臻妙，多聚吾東書跡，分爲四卷，目曰金石清玩。”

79) 宋時烈, 『宋子大全』 권146, 〈滄江趙丈臨己卯諸賢帖跋〉. “第惟帖首，有河西公序文。河西公謂能好惡人者，而序中無一言以及衮·貞之事。其稱美諸賢之辭，應虛焉，有若不欲言而強言者，亦豈身經壁畫之禍，故有所畏而不敢言歟!”

80) 송시열 서문에 한준겸, 강복성, 이호민, 한호 등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어 있었다.⁸¹⁾

송시열은 발문 후반부에서 혹자를 등장시켜 문답법을 통해 ‘기묘제현첩’에 관한 세간의 의문점에 대해 해명했다. 첫 번째 의문은 “임서하는 것보다 목판에 새겨 간행하는 것이 더 흡사하지 않은가?”이고, 두 번째 의문은 “남곤(南袞)의 작품을 어째서 제거하지 않았는가?”이며, 세 번째 의문은 “남곤의 작품까지 임서한 것은 수치스럽지 않은가?”이다. 송시열의 답변은 의외로 명쾌했다. 판각하지 않은 까닭은 원본의 손상을 막기 위한 배려이고, 남곤의 시편을 남겨둔 이유는 그의 죄를 준엄하게 꾸짖기 위함이며, 남곤의 글씨를 임서한 것은 인물됨이 아닌 서법 때문이라는 것이다.⁸²⁾

7. 17세기 중후반, 최응천의 『기묘제현척육(己卯諸賢尺牘)』

숙조 연간의 요절 시인, 연초재 오상렴은 사망하기 몇 해 전인 1704년(숙종 30)에 〈발기묘제현척육(跋己卯諸賢尺牘)〉을 찬술한 바 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기묘제현 간찰에 붙인 발문이다. 발문의 서두에서 “문장은 도(道) 가운데 사소한 것이고 편지는 사소한 것 중의 사소한 것이다. 그러나 안부를 기술하거나 속내를 펼칠 때 수식할 겨를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흥중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 참된 경지에 곧장 나아가므로, 매양 편지를 통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라 말하며, 간찰의 문체적 특징과 중요성에 대해 설파했다.⁸³⁾

선배인 東原 崔公이 일찍이 이 서첩을 손수 베꼈는데 편집을 마치기 전에 세상을

81) 宋時烈, 『宋子大全』 권146, 〈滄江趙丈臨己卯諸賢帖跋〉. “於是, 卅四人詩若文並五十六首, 別行於世, 而不知祖孫賓主之辨, 彼滄洲一響之誤, 不足爲奇勝矣!”

82) 宋時烈, 『宋子大全』 권146, 〈滄江趙丈臨己卯諸賢帖跋〉. “客有以三事難之者曰, 臨之而似也, 豈若剗剗之尤似也! 余應之曰, 贊皇之篆, 宋尚書摸取則善矣, 而州將鑿動, 則識者蓋惜之. 今登諸木而殘其本, 奚曰宜哉! 曰, 袞奸之作, 不去而並存之, 何也? 曰, 邢弋敘述程伯子, 而叔子置諸游呂之間, 蓋不以人廢言也. 且揚雄之反騷, 晦翁編諸張呂之前而曰, 所以甚雄之罪, 安知趙丈之意不出於此也! 曰, 諸賢之心畫, 固欲臨而得之矣. 其於袞也, 不亦辱乎! 曰, 不. 曰晦翁好曹操書乎! 雖被其父之譏而不悔者, 豈無以乎! 於是, 卅四人詩若文並五十六首, 別行於世, 而不知祖孫賓主之辨, 彼滄洲一響之誤, 不足爲奇勝矣! 斯可謂希世之寶矣.”

83) 吳尚濂, 『燕趙齋遺稿』 권5, 〈跋己卯諸賢尺牘〉. “文章, 道之細, 竿牘, 其細之細者, 然其敘寒溫, 布情素, 率然直致, 無暇脩飾, 胸臆之所渙發, 躍然造眞境, 每可以得其人矣.”

떠났고 지금까지 어언 30여 년이 되었다. 공의 손자는 用夏이다. 나는 용하 부친의 벗으로서 일찍이 이 서첩을 함께 본 적이 있다. 이윽고 용하가 그 부친의 명으로 나에게 그것을 완성해주기를 요청했다. 나는 감히 사양치 못하고 완성한 뒤 돌려주었다. 그리고 “자네 부친은 진실로 이것에 대해 애면글면했는데 자네는 알고 있는가? 사소한 것을 통해 커다란 것을 궁구해야 하지 않겠나! 자네가 부친의 뜻을 끝내 이루기를 내가 바라는 바이네”라 말했다.⁸⁴⁾

기묘제현 간찰을 손수 베껴 인물인 동원(東原) 최공(崔公)으로 명시되어 있다. 동원은 강릉(江陵)의 옛 이름으로 최공의 본관을 가리키고, 발문을 지은 1704년을 기준으로 최공이 사망한 지 30여 년이 지났으며, 최공의 손자는 이름이 용하(用夏)이다. 이러한 몇 가지 정황을 종합해보면 최공은 최응천(崔應天, 1615-1671)이 분명하다. 최응천의 장남은 탁(倬)이고 탁의 아들은 용하이다.⁸⁵⁾ 오상렴은 최탁과 교유할 무렵, 그의 부친 최응천이 베껴 쓴 기묘제현 간찰을 본 적이 있었는데, 편집을 가하지 않은 낱장 꾸러미 상태였다. 최용하의 촉탁을 받은 오상렴은 개별 간찰들을 편집한 뒤, 위 발문과 함께 돌려보냈고 사소한 것을 통해 커다란 것을 궁구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지금 기묘제현이 幾齋 安公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보니, 사람마다 약간 편씩인데 애당초 유념하지 않은 편언척자로서 모두 곡진하여 의취가 있었다. 절차타마하며 서로 완성해주는 뜻과 단명하든 장수하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지조가 어찌나 성대한지 가릴 수 없었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나약한 사내의 마음을 격양시키기에 충분했으니 참으로 공경할 만했다. 또한 柳川(필자주: 한준겸)과 河西(필자주: 김인후) 두 공이 논술한 것을 보니 현양하는 마음이 근심했다.⁸⁶⁾

제현 간찰에 구현된 그들의 일상을 통해, 벗들과 서로 권면하며 학문에

84) 吳尙濂, 『燕超齋遺稿』 권5, 〈跋己卯諸賢尺牘〉. “先輩東原崔公, 蓋嘗手寫是帖, 表未終而公即世, 今三紀矣. 不佞於公之孫用夏父友也, 一嘗與寓目焉. 既用夏甫以其尊府命, 謂不佞其完之. 不佞不敢辭, 既成而歸之. 且語曰, 子之先大夫, 實拳拳於是, 子知其解未? 無亦將沿其細而究其大者乎! 子其卒成先大夫之志, 吾爲有望矣.”

85) 鄭澐, 『丈巖集』 권12, 〈外舅晉州牧使崔公墓誌銘〉. “有二男, 倬其長也, 次曰偉, 女長適士人黃命禹, 次適李晚蕃, 季即適澐者也. 倬娶李時點女, 生一男二女, 男用夏, 女長韓柳, 次姜一煥.”

86) 吳尙濂, 『燕超齋遺稿』 권5, 〈跋己卯諸賢尺牘〉. “今讀己卯諸賢抵幾齋安公書疏, 人各若而幅, 卽片語尺牘, 初不經心者, 悉曲有意致. 其切磨相成之義·天壽不貳之操, 隱隱乎其不可拚, 百世之下, 足以激悞夫之膽, 斯其可敬也. 又覽柳川·河西二公所論敍, 其闡揚者勤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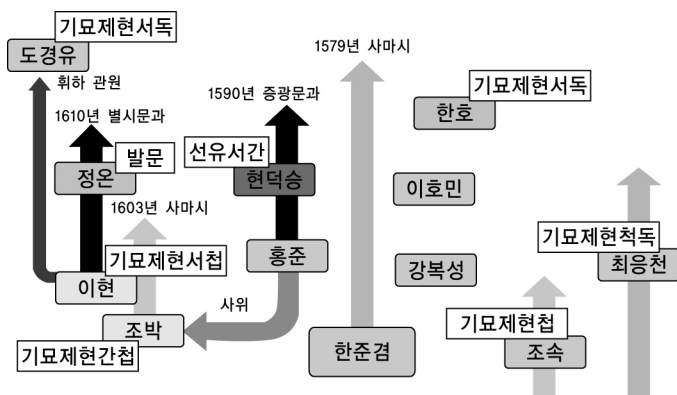


그림21-수첩·수필 모사본 현황과 모사자 관계

정진하는 자세를 배우고 생사에 얽매이지 않은 채 수양과 실천에 힘쓰는 절조를 체득하라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오상렴이 최응천에게 전하는 충고이다. 위 인용문에 한준겸과 김인후의 서문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최응천이 배긴 간찰 저본은 강복성과 이호민이 장황을 꾸미고 한준겸이 발문을 쓰고 한호가 제첨을 적은 『기묘제현서첩』, 혹은 그 모사본이다. 마지막으로 두 필첩의 모사본 제작 양상과 그 인적 관계를 거칠게 정리해보면 그림21과 같다.

IV. 『사제선생실기』와 모각본 필첩의 간행

1820년(순조 20), 혹은 그 직후에 안처순 관련 저술을 집대성하여 『사제선생실기(思齊先生實紀)』를 간행했다. 18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안씨 일문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사제선생실기』의 간행은 수필·수첩의 대중적 유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음은 강재(剛齋) 송치규(宋祁圭, 1759-1838)가 1820년(순조 20) 4월에 찬술한 〈사제선생실기발문〉으로서⁸⁷⁾ 안처순의 10대손 안사눌(安思訥)이 송치규에게 발문을 요청하는 부분이다.

87) 송치규의 문집에 수록된 『思齊實記跋』(『剛齋集』 권6)에는 찬술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사제선생실기』에 실린 발문에는 “崇禎四庚辰孟夏日, 恩津宋穉圭謹識”라는 기록이 보인다.

어느 날 그 후손 思訥이 『思齊實記』를 가져와서 내게 보여주며 “편집하여 완성한 분은 우리 族祖(필자주: 安克孝)이고, 교정한 분은 漢湖 金公(필자주: 金元行)이며, 서문은 쓴 분은 廣巖 朴公(필자주: 朴聖源)이고, 재물을 모으고 장인을 모아 『諸賢手筆』과 함께 판각한 분은 우리 조부(필자주: 安克謙)입니다. 재력이 부족하여 印出하지 못하고 선조의 書院(필자주: 寧川書院)에 冊板을 보관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보관하지 못한 탓에 책판이 대부분 썩어 결락되었는데 유독 『手筆』은 신이 도운 듯 가장 완정했습니다. 저는 선조를 위하는 우리 조부의 정성이 이미 이뤄진 상태에서 훼손되어, 후세 사람들이 우리 선조의 아름다운 자취를 살필 수 없을까 염려한 나머지, 마침내 여러 친척 및 서원 유생과 상의하여 재력을 마련한 뒤 썩은 책판을 개수하여 간행하려 하는데, 발문이 없을 수 없기에 감히 청하는 바입니다.”⁸⁸⁾

위 인용문에 의하면 『사제선생실기』 간행을 위해 족조(族祖)의 편집과 미호(漢湖) 김원행(金元行, 1702-1772)의 교정을 이미 거쳤고, 목판에 새기는 작업을 마치고 나서 1761년(영조 37)에 광암(廣巖) 박성원(朴聖源, 1697-1767)의 서문까지 받은 상태였다.⁸⁹⁾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안사눌의 족조인 안극효(安克孝, 1699-1762)에 의해 추진되었고⁹⁰⁾, 조부인 만회(晩悔) 안극겸(安克謙, 1703-1780)이 재용 마련과 판각을 담당했다.⁹¹⁾ 『사제선생실기』 6권 2책에는 세계(世系), 연보(年譜), 저술(著述)을 위시하여 부록으로 사제당제영(思齊堂題詠), 장퇴(狀詠), 제문(祭文), 영천원적(寧川院蹟) 등을 망라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권5에 ‘제현별장(諸賢別章)’(수필)과 ‘제현간독(諸賢簡牘)’(수첩)이 포함되어있고⁹²⁾, 『기묘제현수필』을 간행할 목적으로 수첩·수필의 서체까지 그대로 모각(模刻)한 책판도

88) 宋穉圭, 『剛齋集』 권6, 〈思齊實記跋〉. “一日, 其後孫思訥, 以『思齊實記』來示余曰, 編成者, 吾族祖也. 考訂者, 漢湖金公也. 序之者, 廣巖朴公也. 鳩財募工, 並『諸賢手筆』而剞劂之者, 吾祖也. 力綿未克印出, 藏板于先祖書院, 藏之未得其善, 板多腐朽剝缺, 而獨『手筆』最完, 若有神扶者. 吾大懼吾祖爲先之誠, 毀于既成, 使後之人, 無所考於吾先祖徽蹟, 遂謀于諸族及院儒, 而拮据財力, 將改腐朽之板而印行之, 不可無跋語, 敢以爲請.” 이 발문은 『思齊堂實紀』 권미에도 〈思齊先生實紀跋〉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89) 朴聖源의 〈思齊先生實紀序〉(『思齊堂實紀』)에 서문 찬술 시기가 “崇禎後三辛巳臘月下浣”으로 되어 있다.

90) 〈思齊先生實紀序〉(『思齊堂實紀』). “後孫克孝士則大懼泯湮, 修其世系·年譜·著述, 以及於壯詠·院享諸文字, 間以諸賢詩章·簡牘摠若干編, 名之曰, 『思齊先生實紀』. 於是, 公之源派·履歷·志行·終始, 一開卷, 可以瞭然矣.” 안극효의 생평에 대해서는 奇宇萬(1846-1916)의 〈司諫院司諫安公墓碣銘〉(『松沙集』 권29) 참조.

91) 安思訥과 조부 安克謙의 가계는 宋穉圭(1759-1838)의 〈成均生員安公墓表〉(『剛齋集』 권9); 奇宇萬의 〈晩悔處士安公墓碣銘〉(『松沙集』 권30) 참조.

92) 이 글에서는 전별시문을 수록한 『기묘제현수필』과 구분하기 위해 모각본 『기묘제현수필』을 ‘모각본 필첩’으로 칭하였다. 『사제선생실기』 서두의 總目에는 ‘諸賢別章’으로 되어 있으나, 권5 본문에는 ‘求禮別章’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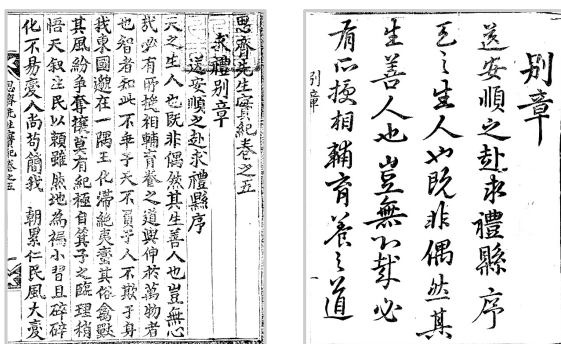


그림22-『사제선생실기』 권5, 그림23- 모각본 필첩, 「別章」
「求禮別章」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물력이 부족한 탓에 인행(印行)에 이르지 못했고, 안사눌은 조부의 뜻을 계승하고자 종종 및 원유(院儒)와 상의하여 비용을 마련한 뒤 마침내 『사제선생실기』와 모각본 필첩, 두 책을 인출하였다.

『사제선생실기』 권5에 ‘구례별장’(수필)과 ‘제현간독’(수첩)을 수록한 것은 두 첩이 안처순의 행적과 교유뿐만 아니라 안씨 가문의 위상을 부각시킬 수 있는 최적의 문헌이기 때문이지만, 수첩·수필의 대중적 확산에 적잖은 기여를 한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제현의 필체와는 무관하게 그 내용만 판단한 것이다. 이 밖에 모각본 필첩은 제현별장을 수록한 ‘기묘제현수필’과 제현간독을 수록한 ‘기묘제현수첩’을 아우르는 책이다. 한준겸의 서문, 수록 인물의 간략한 인적 사항인 제현목록(諸賢目錄), 별장(別章), 서찰(書札), 〈자서(字序)〉, 김인후의 발문⁹³⁾, 조인영의 발문, 조성교의 발문이 차례대로 실려 있다. 이 가운데 〈자서〉는 자암(自庵) 김구(金絿, 1488-1534)⁹⁴⁾가 안처순의 아들 안전에게 ‘문보(文寶)’라는 자(字)를 지어주며 그 의미를 부연한 글로서 안처순과 김구가 사망한 해인 1534년(중종 29)에 지은 것이다. 모각본 필첩의 이본들 사이에 수록 내용의 차이를 보이고, 한 책 중에도 책판 크기, 글자와 어미 모양 등이 상이한 것으로 보아, 모각본 필첩을 처음 간행한 이후에 추각(追刻)과 중간(重刊)을 여러 차례 거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25에서 볼 수 있듯이

93) 전술한 바와 같이 김인후의 글은 본래 수첩 앞부분에 서문 형태로 실려 있었다.

94) 김구는 〈字序〉 후반부에서 자신을 ‘三一病夫’라 칭했다. ‘三日齋’는 김구가 만년에 사용한 號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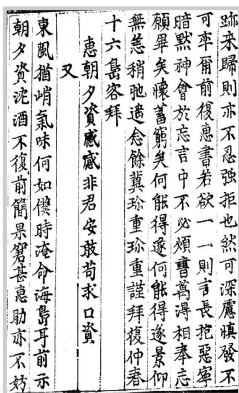


그림24-『사제선생살기』 권5, 『諸賢簡牘』, 金絳 간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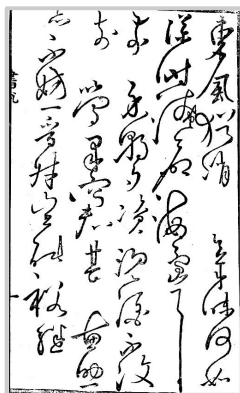


그림25-모각본 필첩, 金絳 간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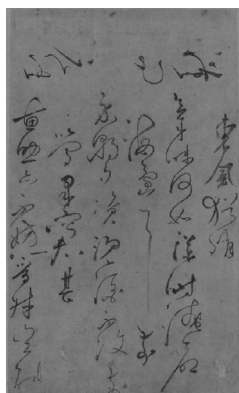


그림26-수첩, 金絳 간찰

모각본 필첩은 제현의 서체를 그대로 모각하되, 여백에 적힌 글씨는 판각상의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본문 속에 수렴하여 새겼다. 그리고 원문에 교정 사항이 있을 경우 그것을 반영하여 목판에 새겼으며, 간행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두(擡頭)를 격간(隔間)으로 대체했다. 이처럼 모각본 필첩의 간행을 통해 수첩·수필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요구에 상당 부분 부응할 수 있었고, 최대한 진적(眞跡)에 가까운 형태로 제현의 심획까지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독자에게 제공했다.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먼저 『기묘제현수필』과 『기묘제현수첩』의 성첩 및 장황 경위, 작품의 출입과 차례(次第)의 변화 등에 대해 살펴보고, 모사본(模寫本)과 모각본(模刻本)의 출현 양상을 통해 두 첩의 유전과 확산, 수필과 수첩에 대한 당대 지식인의 인식을 검토해보았다. 수필과 수첩을 한양에 가져와서 수첩을 첩으로 만든 뒤, 두 첩의 존재를 널리 소개한 것은 한준겸(韓浚謙)이고, 완정하게 장황하고 나서 ‘기묘제현수첩’이라 명명하고 한호(韓濩)에게 제첩 글씨를 쓰게 한 것은 강복성(康復誠)과 이호민(李好閔)이다. 한준겸과 강복성이 수첩 제작과 현양에 노력을 기울인 것은

혈연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 19세기에 들어서는 전라도관찰사를 역임한 조인영(趙寅永)과 조성교(趙性敎)에 의해 장황이 개수되었다. 수필을 개장(改粧)할 당시, 작품 순서를 혼동하지 않기 위해 이면에 세필로 적어둔 숫자를 통해 개장하기 이전 수필의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

기묘제현 친필은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고, 이러한 현상은 시대나 당색을 초월했다. 특히 심인조(沈仁祚), 조원봉(趙遠朋)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묘제현 후손의 경우는 수첩과 수필에 대한 욕심이 남달랐다. 수필에 실린 일부 작품이 타인의 필치로 써어진 것은 이 때문이다. 한준겸이 두 필첩을 한양에 소개한 이래로 동년(同年)이나 혼반 등 다양한 인적 관계망 속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모사본이 제작되었다. 모사본을 만든 인물로는 현덕승(玄德升), 한호, 조박(趙璞), 이현(李紘), 도경유(都慶兪), 조숙(趙淩), 최응천(崔應天) 등이 확인된다. 특히 한호는 제첩 글씨만 쓴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성해응(成海應)의 발문을 통해 두 필첩을 임서한 한호 모사본이 조선후기까지 유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현전하는 도경유 모사본은 17세기 전반기 필첩의 원형을 유추하는 데 유효한 정보를 제공한다.

순조 연간에 결실을 맺은 『사제선생실기』의 간행은 수필·수첩의 대중적 유포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이 책에 ‘제현별장(諸賢別章)’(수필)과 ‘제현간독(諸賢簡牘)’(수첩)을 수록한 것은 안처순의 행적과 교유뿐만 아니라 안씨 가문의 위상을 부각시킬 수 있는 최적의 문헌이기 때문이지만, 두 필첩의 대중적 확산에도 적잖은 기여를 했다. 이 밖에 모각본 필첩도 간행되었는데 수필과 수첩을 아우르는 책이다. 모각본의 간행을 통해 두 첩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할 수 있었고, 최대한 진적(眞跡)에 가까운 형태로 제현의 심획까지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모사본과 모각본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기묘제현에 대한 시공을 뛰어넘는 존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다양한 형태의 모사본 제작은 서예에 대한 남다른 조예와 자부심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모사 자체가 제현의 심획을 재연하는 신성한 행위였으며 제현을 향한 헌정의 의미도 담겨 있었다. 효종 연간에 송시열(宋時烈)은 글이 뛰어나고, 글씨가 뛰어나고, 그 사람이 뛰어나고, 오래되어 희귀하다는 네 가지 사실로써 기묘제현 필첩의 가치를 요약했다. 35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송시열의 견해는 여전히 유효하며 그 희소성은 더욱 배가될 수밖에 없다.

참 고 문 헌

안승준, 「『기묘제현수필·수첩』의 내용과 성격」, 『기묘제현수필 기묘제현수첩』,

한국간찰자료선집10,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진보모, 「南原의 書藝와 書藝遺蹟 考察」,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奇宇萬, 『松沙集』.

金麟厚, 『河西先生全集』.

都慶俞, 『己卯諸賢書牘帖』(屏巖書院 소장본).

——, 『洛陰文集』.

宋秉璫, 『淵齋集』.

宋時烈, 『宋子大全』.

宋麟壽, 『圭菴集』.

宋穉圭, 『剛齋集』.

吳尙濂, 『燕超齋遺稿』.

吳億齡, 『晚翠集』.

柳夢寅, 『於于集』.

尹根壽, 『月汀先生別集』.

李景奭, 『白軒集』.

李敏求, 『東州集』.

李宗休, 『下庵文集』.

李廷龜, 『月沙集』.

李春英, 『體素集』.

鄭蘊, 『桐溪集』.

鄭澍, 『丈巖集』.

趙寅永, 『雲石遺稿』.

河受一, 『松亭集』.

韓浚謙, 『柳川遺稿』.

玄德升, 『希菴遺稿』.

洪瑞鳳, 『鶴谷集』.

黃暹, 『息庵集』.

黃廷彥, 『芝川集』.

『國朝文科榜目』(규장각 소장본).

『己卯諸賢手帖』(장서각 기탁본).

『己卯諸賢手筆』(장서각 기탁본).

『思齋先生手筆』(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思齊先生實紀』(순흥안씨 소장본).

『鎮安縣邑誌』(규장각 소장본).

『筆苑』(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소장본).

국 문 요 약

‘수필’과 ‘수첩’을 한양에 처음 소개한 것은 한준겸(韓浚謙)이고, 완정하게 장황하고 나서 ‘기묘제현수첩’이라 명명하고 한호(韓濩)에게 제첩 글씨를 쓰게 한 것은 강복성(康復誠)과 이호민(李好閔)이다. 한준겸과 강복성이 기묘제현의 필첩 제작과 현양에 노력을 기울인 데는 안처순 및 수록 인물과의 혈연적 관계가 크게 작용했다. 19세기에는 전라도관찰사 조인영(趙寅永)과 조성교(趙性敎)에 의해 장황이 개수되었는데 개장(改粧)할 때 작품 순서를 혼동하지 않기 위해 종이 이면에 세필로 적은 숫자를 통해 개장하기 이전 수필의 형태를 가늠할 수 있다.

한준겸이 한양에 소개한 이래로 동년(同年)이나 혼반 등 다양한 인적 관계망 속에서 두 필첩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모사본이 제작되었다. 특히 한호는 제첩 글씨만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성해응(成海應)의 발문을 통해 두 필첩을 임서한 한호 모사본이 조선후기까지 유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전하는 도경유 모사본은 17세기 전반기 필첩의 원형을 유추하는 데 유효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러 모사본은 제목에서 ‘서간(書簡)’, ‘서독(書牘)’, ‘간첩(簡帖)’, ‘서첩(書帖)’, ‘척독(尺牘)’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필까지 모두 수록한 것으로 여겨진다.

순조 연간에 간행된 『사제선생실기』와 모각본 필첩도 수첩과 수필의 대중적 확산에 적잖은 기여를 했다. 특히 모각본의 간행은 최대한 진적(眞跡)에 가까운 형태로 제현의 심획까지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기묘제현의 친필은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고 이러한 현상은 시대나 당색을 초월했다. 효종 연간에 송시열(宋時烈)은 글이 뛰어나고, 글씨가 뛰어나고, 그 사람이 뛰어나고, 오래되어 희귀하다는 네 가지 사실로써 기묘제현 필첩의 가치를 요약했다. 35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송시열의 견해는 여전히 유효하며 두 첩의 희소성은 더욱 배가될 수밖에 없다.

투고일 2016. 6. 24.

심사일 2016. 7. 28.

게재 확정일 2016. 8. 22.

주제어(keyword) 『기묘제현수필』(*Gimyo-sages's supil*), 『기묘제현수첩』(*Gimyo-sages's sucheop*), 안처순(An chur-soon), 모사본(Copies), 모각본(Carved specimens), 동년(Applicants who passed in the same examination)

Abstracts

Production and Diffusion of *Gimyo*(己卯)-sages's *supil* and *Gimyo*(己卯)-sages's *sucheop*

Kim, Deok-su

It is Han joon-gyum(韓浚謙) to introduce *Gimyo*(己卯)-sages's *supil* and *Gimyo*(己卯)-sages's *sucheop* to Hanyang for the first time. And it is Gang bok-sung(康復誠), Li ho-min(李好閔) to make Han-ho(韓濩) write title letter after naming as 'Gimyo(己卯)-sages's *sucheop*'.

Han joon-gyum, Gang bok-sung's efforts of trying to Publish and make *supil* widely known is working on kinship with An chur-soon(安處順) as well as including persons in *sucheop*. It was mounted one more time by Cho in-young(趙寅永) who was Geolla-Do governor and Cho sung-gyo in 19th century. At that time, we can guess the previous form of *supil* through numbers written in small on the other side not to confuse the order of works.

After two specimens of handwriting is introduced to Hanyang by Han joon-gyum, it is spreaded quickly through in human relation net work(for example, Dongnyun(同年): applicants who passed in the same examination or <Honban>: who were married with each other). And various copies are produced in this process.

Especially, although Han-ho is known by only writing title-letter, we can confirm that copies of Han-ho which imitated two specimens are inherited to late Joseon period through writings of Sung hae-eung(成海應). And the copy of Do geong-you(都慶兪) which is transmitted up to now gives an useful information to guess the original form of specimens in early years.

Sajeseonsaeng-silgy(思齊先生實紀) and specimens which was carved in are substantially contributed to mass proliferation of *supil* and *sucheop*. Publication of carved specimens gives a opportunity to appreciate a real stroke which is very closed to the best original form. Gimyo-sages's own handwriting is considered as holy being to confucian scholars in Joseon period, and this phenomenon transcend time and the inclination of politics. Song si-yeol(宋時烈) in Hyojong(孝宗) years summarized the worth of Gimyo-sages's specimens as four abstracts in the following manners; writing outstanding, excellent character, excellent personality and the old rareness. I think that Song si-yeol's opinion is available up to present although 350 years has been passed and the rarity of two specimens cannot help standing out.